

지속가능한 제주개발을 위한 토론회

- 송악산 관광지 개발논쟁을 중심으로 -

- 토론회 일정 -

■ 등록 (14:00~14:20)

■ 개회 및 논제발표 (14:20~14:50) 진행 : 이용완 제주대학교 교수

○ 개회사 (14:20~14:30)

- 장성수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장

○ 논제발표 (14:30~14:50)

- “송악산관광지 개발의 전개과정과 갈등적 논제”

(송재호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Coffee Break (14:50~15:00)

■ 토론회 (15:00~17:00)

▶ 제1섹터 / 송악산관광지 개발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 (15:00~15:50)

○ 좌장 / 부만근 제주대학교 교수

○ 토론 / 신상범 자연보존협회 제주지부장

양동근 남제주군 관광공보과장

이태보 전 대정읍리장단협의회회장

정상배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한광문 제주도관광개발협의회 사무국장

한동주 제주도 투자진흥관 (가나다 순)

○ Coffee Break (15:50~16:00)

▶ 제2섹터 /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송악산관광지 개발방향 (16:00~16:50)

- 좌장 / 서경림 제주대학교 교수
- 토론 / 강영훈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수중 한국일보 논설위원
 - 김종배 제민일보 기획실장
 - 윤성효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 이장춘 한국관광정책학회장 (가나다 순)
- 청중질의 및 토론자 답변 (16:50~17:00)
- 종합정리
 - 좌장

■ 폐 회

장성수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봄이 시작되는 3월의 마지막날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시기 위해서 멀리 서울과 부산에서 오신 토론자 여러분과 또 도내에서 자기의 직장일과 각종 관심사로도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제주지역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과제와 더불어서 지속가능한 제주개발이라는 것이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송악산 관광개발지구에 대한 개발논쟁이 불거짐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한층 더 접근해 가는 것이 저희 연구소와 지역주민의 바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기 보다 이러한 만남의 장과 토론의 장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종일 힘찬 주장과 슬기로운 경청을 통해서 하루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오후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완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네 이어서 제주대학교 송재호 교수님으로부터 '송악산 관광지개발의 전개과정과 갈등적 논제'라는 제하의 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송재호(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논제발표 : pp 50~69까지의 내용임>

토론회 제1섹터

좌장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부만근 교수): “제 1부 토론의 주제는 송악산 관광지 개발의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송재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제발표를 통해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송악산 관광지 개발은 사업자 측에서 이미 개발사업 기공식을 했습니다. 반면에 환경단체에서는 개발사업승인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같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서로 견해가 다르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어떤 감정적 요소를 표출할 그런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우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토론자들에게서는 가슴에 의한 감성보다는 머리에 의한 이성으로 토론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토론내용이 여러분의 견해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조용히 경청을 해주셔서 제주도민들의 수준 높은 토론문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섯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연보호협회 제주도지부 신상범 지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남제주군 관광공보과 양동곤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대정읍 이장단협의회 이태보 회장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상배 사무국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제주도 관광개발협의회 한광문 사무국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청 한동주 투자진흥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제1부에 할애된 토론시간은 50분입니다. 길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자 한 분당 7분 이내의 시간밖에 드리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1부가 끝난 다음에 2부와 또 종합정리시간이 있기 때문에 토론자들께서는 반드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노란 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옐로카드를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얀 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하얀 카드는 바로 옐로 카드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아까 소개와 관계없이 편의상 저희가 조합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남제주군 관광공보과 양동곤 과장님께서 가장 먼저 토론이 있겠습니다.

양동곤 (남제주군 관광공보과장): “ 남제주군 관광공보과장 양동곤입니다. 그 동안 일선에서 관광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소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관광개발의 여건, 국내외 관광에 대한 관심,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송악산 개발 허가과정, 외자유치 및 향후 추진계획의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개발의 여건을 보면 제주관광개발은 1966년도부터 제주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기초조사가 시행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40여년 동안 제주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특정지역계획을 비롯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등 많은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제주관광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호텔 등 숙박

박시설과 골프장 등의 관광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다양한 계층의 기호에 맞게 휴양하고 즐기고 체류하는 종합휴양지의 개발에는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남제주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특정지역계획과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여러 관광단지 및 지구가 지정되었으나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있지만 완공된 사업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럴 듯한 관광호텔 한 군데도 없는 실정으로 국제적 관광지라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관광개발이라는 자체가 여타의 투자와는 달리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자금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소요되는 자금운영상의 특수성이 투자자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 점은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를 유혹하고 투자결정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투자자를 유혹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관광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조세의 감면, 인허가의 지원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 또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시설 등 소득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실질적 지원은 중앙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그 실효성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서 민자 또는 외자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선에서 직접 투자유치를 담당하면서

철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자유치에 있어서 제도적 지원 못지 않게 외국인투자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체계입니다.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의 신인도에 대하여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총체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남제주군의 관광개발은 민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2개 단지 7개 지구에 대하여 '94년도부터 적극적인 민자유치활동을 전개해온 결과 현재 토산, 미천굴, 용머리지구 등 3개지구가 공사 중에 있고 남원지구가 착공되었으며 송악산, 수망, 신흥지구가 개발사업이 승인되는 등 남제주군 관광진흥의 일대 혁신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에 대한 관심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굴뚝 없는 수출산업으로 21세기 관광시장 규모가 엄청난 증가를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관광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의 자치단체가 관광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성없는 관광전쟁이라 표현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카지노 문제와 관련한 강원도 등 타 자치단체에서의 강력저지운동은 자치단체간에도 어느 정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입증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우리나라 관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때이다.

다음은 송악산 관광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제주군의 관광지 개발은 앞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민자 및 외자가 유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에 따른 논란 등으로 솔직히 관광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악산 관광지구가 사업자가 지정되고 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송악산 주변일대는 일제시대부터 주민에게는 애환이 서린 곳으로 대정읍. 지역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송악산 개발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끈질긴 요청에 의하여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관광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관광지구가 지정된 후에는 민자유치 및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관광개발이 난항을 겪게되자 주민 스스로 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관광개발사업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제주군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염원을 익히 알고 있기에 송악산을 개발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은 송악산 관광지개발의 허가과정을 보면은 지난 '97년 말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의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등 경제가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국내투자가에 의한 개발사업이 주춤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동반자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사업자가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프랑스

의 아코르 그룹은 전세계에 4000여 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전문 매니지먼트 기업으로 기업의 자금유입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토리그룹 또한 전세계 200여개 이상의 도시에 놀이시설을 공급하는 등 국제적인 놀이기구 제작기업으로서 사업시행의 확실성에 신뢰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놀이공원이 없는 제주도에 새로운 관광객 흥미유발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사토리 그룹관계자와의 만남에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정당국의 노력과 사업시행자 측의 끈질긴 외자유치노력에 따라 지난 해 4월에 남제주군과 사업시행자 그리고 외국투자기업간에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과정 등을 거쳐 지난 해 12월 30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입장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송악산 관광지구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개발만을 위한 신속한 승인과정을 거친 것이며, 제주도 및 남제주군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악산 관광지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외자가 유치되고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 차례의 지역주민 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공개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남제주군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이 단순한 사업자의 개발사업이 아닌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사회적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충분한 주민의 의사를 존

중하였으며,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로 송악산 관광지구의 개발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송악산의 분화구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악산은 경관적으로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가치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특별히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또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분화구(제 2분화구)와 해안에 접한 50미터는 적극 보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기존지형의 원형의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송악산은 제 2분화구를 제외하고는 농경지와 목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어 자연 생태적으로는 그 중요성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관리와 복원을 통하여 오히려 자연환경의 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 군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로 송악산을 마라해양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집단시설지구로 계획한 것은 '개발사업만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악산 일대를 마라해양군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기존에 송악산지역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행 제주도 개발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설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놀이시설이 도입될 경우 용도지역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송악산을 장기적으로 공공적 관리기능의 확립과 개발이익의 지역화가 우선되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며, 송악산 일대를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것은 송악산 일대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이미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으로 공원전체의 효율적 용도지구관리 목적으로 한 것이 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지정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번째로 송악산개발과 관련하여 제주도 개발특별법, 자연공원법 등의 법률에 위배된다는 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악산 관광지구의 개발은 외자가 유치되는 국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이므로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의 자문과정 등 세밀한 검토결과에 따라 행하였으며, 법률적 하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공원법상 공원의 지정조건에 보면 국공유지 비율이 사유지보다도 많아야 하는데 군 유지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국공유지 비율이 사유지보다 적게 됨으로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악산 일대를 군립공원으로 편입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 비율이 51%로서 사유지보다 많아 자연공원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지정 후 공원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유지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후 마라해양군립공원 전체로 본다면 0.7%가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이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절차와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되고 승인된 사업으로 국제적 신인도와 관계되는 사업은 물론 향후 제주도 관광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악산 지구의 외자유치는 아코르 그룹인 경우 지난 3월 24일 호텔 매니지먼트 계약과 아울러 기술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

부 협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토리 그룹과는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져 놀이시설 일부가 송악산 현장에 도착하여 있는 등, 4월 중순에 협정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수망, 신흥지구에도 외자유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송악산 관광지구에 대한 논란은 모처럼 활기를 찾으려하는 외자유치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큼니다. 관광개발과 관련한 외자유치는 단지 국내 자금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광은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외자유치는 제주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의 향후 계획으로서, 송악산은 자연경관적, 지질학적으로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자연자원의 원형 즉, 송악산 분화구와 해안변은 적극 보전하며, 알 오름 등 자연지형변화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자연과 조화되고 오히려 자연이 더욱 돋보이는 방안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자연과 관광개발이 조화되는 모범관광지로 개발의 표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발과정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현세는 물론 후세에 조금도 후회 없는 그리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관광지로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관광개발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복리증진에 있다는 점을 항상 정책의 머리에 두어 송악산 관광지 개발

을 추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송악산 관광지구의 개발은 대정읍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일부지역의 개발이 아닌 그 여파가 제주관광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각계각층에서는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좌장: “많은 준비를 해와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환경운동연합 정상배 사무국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상배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정상배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다섯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슬라이드 상영을 할 예정이오니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놀이시설을 투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업체에서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체가 사업자가 온거 아니죠? 사업자 맞습니까? 토론자로 온 거 아닙니다. 정확히 사업자가 와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업자가 안 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사업자가 참석을 하여 입장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여기에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없죠?

저기 남제주리조트에서 왔습니까?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저희들이 원래 송악산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자꾸 지적했는데 업체에서 저렇게 협박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 단체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너희들 가만 안 둔다. 죽인다. 폭파시킨다.’ 지금 현재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십시오.“

좌장: “잠깐만요. 우리 투표자께서 표현을 가능하면 좀 순화를 시킵시다.”

정상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 물러설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정당당하게 이 송악산 문제를 가지고 올바른 자세에서 정확하게 이런 문제점을 판단하고 저희들의 의견대로 해서 정확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개발 계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개발 계획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저희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거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관광객들의 입장이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물론 남제주군에서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걸 가지고 한 번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수렴이 한 번이라도 되었는지, 그런 일들을 먼저 했어야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 관광객들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협정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협정서에 따라서 어떤 투자협정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투자협정이 되는 일정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 또는 주민들 그리고 학계, 행정기관 등 이런 여러가지 각계 모임이나 단체들의 입장들이 반영되는 그런 일들을 어떤 자리에서, 정확한 투자협정에 관한 자리를 공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송악산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보면 가파도가 보입니다. 거기에 건설중단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건설이 중단되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환경단체가 자꾸 늦게 대응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분명히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좀 늦게 대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과 9월에 의견수렴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을 거치면서 8월에서 12월까지 사업승인이 되어서 불과 5개월 동안 급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 좀 더 일찍 대응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슬라이드 상영이 있겠습니다.”

이태보 (대정읍 이장단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에 거주하는 이태보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서 대정읍민을 대신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이던 송악산개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주신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주위에 있는 어떤 관광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대정읍에 있는 송악산 개발을 위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대정읍으로 옮겨 가지고 대정읍에서 했더라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울러 촌에서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이와같은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저의 말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송악산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앞쪽으로는 국토의 시작이자 최남단인 마라도와 가파도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고 태평양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있을 뿐만 아니라 뒤로는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산방산과 바다로 뻗어있는 용머리 해안절벽 그리고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곳으로 이런 경치야말로 송악산 말고는 구경할 수 없는 풍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경이 수려한 송악산의 곁에 살면서도 우리 대정주민들은 시원하게 한 번 웃어보지 못하고 저와 같이 모두 인상을 쓰고 사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요즘 개발이 된다고 해

서 웃음이 조금 활짝 피다가 그 웃음이 다시 언젠가 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웃음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국제관광지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광지 개발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지났건만 송악산은 지금까지 소외되어왔습니다. 특히 송악산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중요한 농경지로 대정주민들이 삶을 일구어왔으며 일제시대에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각되면서 세계침략의 전쟁기지로 활용되어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등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송악산에는 일제의 잔재인 격납고 22개, 알뜨르 비행장, 서오름, 동알오름 봉우리에 있는 곡사포진지, 송악산 절벽을 돌아가면서 파놓은 15개의 어뢰정 동굴과 접안시설 등이 있는데, 이를 보면 일제시대의 기지 규모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징용된 우리 대정읍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 이제는 대정읍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큰 기대를 걸었으나 이는 물거품이 되어 버린 채 마치 처형장처럼 4·3사건의 억울한 장소로 한 때 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곳이지만 대정읍민은 이 일대를 삶의 터전으로 회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정부는 여전히 군사적 가치로만 바라보면서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제한만 하더니 1988년에는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말았습니다. 대정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어, 일어나 투쟁을 함으로 선거 때만 되면 선량들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해 주고 농경지로 불하해 주겠다는 사탕발림을 하는 공약

이 지역이슈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도 헛된 일이었기에 지역에서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제주도 등에 진정하여 1988년 1월 군사시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였으나, 군사보호지역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읍민은 여기에 맞대응하여 계속 노력한 끝에 1993년 1월 군사보호지역이 해제되었으며 1994년 6월에는 급기야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에 송악산이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정읍민은 오랜 숙원이던 송악산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겠구나 하는 큰 기대를 걸던 차에 1995년 11월 대명레저산업이라는 업체가 개발하겠다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때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으며 매우 큰 기대를 걸었으나, 1년만에 개발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하룻밤의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다시 갑을개발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으나 기대는 걸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없진 않았습시다라는 역시 이 업체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송악산 개발은 역시 이루어질 수 없구나 하는 포기를 할 즈음 1999년 3월 남제주리조트개발이 다시 개발사업자로 신청하면서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했고, 또한 대표이사는 우리 대정지역 출신이기에 이번 만큼은 읍민의 염원에 부응하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람속에 기대를 걸던 차에 4월에는 외자유치 협정조인을 가졌고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비롯 10월 7일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개발계획은 환경을 파괴하는 맹목적인 개발이 아

나라 대정읍민을 위해 80%이상 고용을 창출하고, 이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위한 직판장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자체 소득증대사업, 민박촌 지원 등 이익금의 지역환원사업도 전개하겠다는 사업방침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매우 희망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즈음 난데없이 우주과학센터라는 로켓 발사기지가 대정지역에 들어선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정읍민들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설명회를 마다하고 반대를 해서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1999년 12월 30일 송악산개발사업시행이 나자마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2000년 1월 7일 모 지방 일간지에, 1월 12일 모 중앙일간지에 송악산 개발은 파괴행위니 천연보호구역지정, 지질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등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대정읍민의 자존심을 매우 짓밟는 듯한 기사가 게재되자 지난 과거의 아픈 시련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하였습니다. 그 동안 송악산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수 차례 열었는데 그 기간에는 누구 한 사람 설명회 자리에 나타나서 보존가치의 중요성이나 학술적·지질학적 중요성에 대하여 대정읍민에게 제안·제시는 물론 한 마디 말도 없다가, 개발승인하고 사업을 착공하려하자 송악산 개발은 즉각 중단하라 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 대정읍민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송악산을 가꾸고 지켜온 사람은 대정읍민들이지 송악산 개발반대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나 학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자나 환경단체에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1월부터 송악산 개발문제를 지역이슈로 만들어 환경단체나 학자들이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주시 등 타 지역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보존이 어떻고 학술적 가치가 어떻고를 주장했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 하나 없었습니다. 또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로 인해서 현재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며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는 결로 보아서 송악산만 잘 보존되면 되지 대정주민이야 굶어죽던 말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지금까지 그래 온 것처럼 송악산은 언제쯤 개발이 될 건가 하고 송악산만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인지 학술연구·환경연구차 왔다가는 사람들과 우리지역에 별 도움 없이 그저 구경하고 돌아가는 관광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라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궁금합니다. 학식과 교양을 갖춘 분들이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송악산을 아끼고 보존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제일 먼저 대정읍민들을 만나서 이 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개발과 보존의 하모니를 이루어 노력하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여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읍민들은 너무나 먼 곳에서 서서 법적대응불사,

송악산 개발반대 운동전개 운운하는 것은 대정읍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관계되는 분들이 읍민들이 수궁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악산 기암절벽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풍광이 수려한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정읍민들은 송악산이 무분별하게 파헤쳐 가지고 개발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한 개발이라면 그 누구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중에는 개발 감시단을 구성해 가지고 보호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악산을 유리관 속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보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놔둔다고 해도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전부 기암절벽이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위적으로 또한 자연적으로 훼손될 것은 물론입니다. 예로부터 명당이라고 이곳 송악산은 소문났기 때문에 몰래 묘지로 사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설 건축물에 의한 상행위, 말과 소의 방목과 송악산 남쪽 레이더기지 시설로 서서히 훼손과 파괴행위가 이루어져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정읍민 다수는 송악산 개발을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근 송악산 개발을 계기로 지역이 발전하기 간절히 원하기에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외치며 우주센터 설치반대를 외치며 개발을 목전에 두고 읍민들의 가슴을 또다시 쓰라리게 하는 행위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악산 관광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

이 아닙니다. 송악산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지역 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를 통하여 지역을 하나 둘 떠나가는 대정사람들에게 이제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인구를 늘이는 등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바라고 있고, 개발사업자는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관광지 조성으로 이윤창출을 바라고 있고, 환경단체나 학자들은 자연환경으로 귀중한 송악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삼자의 이해가 서로 다르므로 또다시 원점으로 새로 시작하자고 억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하는 목표로 서로가 노력하면서 납득할만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송악산 개발을 성공시킨다는 대전아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조하고 조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3월 25일 기공식도 가졌고 외자유치가 기정 사실화된 마당에 개발에 저해되는 행위는 일체 접어두시고 모두가 바라는 성공적인 송악산 개발에 주민 모두가 협조해 주시고 환경단체나 언론사에서도 협조해 주셔 가지고 대정읍민들에게 희망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었던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해오셔서 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사인을 넣어도 끝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자의 능력부족을 여기서 시인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카드사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주 제주도 투자진흥관께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엄수 꼭 부탁드립니다. ”

한동주 (제주도청 투자진흥관): “저도 시간을 엄수할 자신이 없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청 관광개발 행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송악산개발 문제와 함께 제주도의 관광현실 그리고 외자유치의 어려운 현실 이런 문제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의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지방 자치단체, 시, 도 그리고 전 외국의 경쟁지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관광산업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막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무진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제주도하면 관광의 일번지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사업만이 살길이라고 하면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중앙의 어느 회의에 갔다가 부산시의 부시장 이 와 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관광개발만이 살길입니다.”하고 얘기하는 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강원도만이 우리 경쟁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 지역의 관광객 현황을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부산은, 98년에 관광객이 4천만 명입니다. 외국인관광객은 120만명이었습니다. 강원도는 3천 8백만명에 외국인이 45만명입니다. 우리 제주도

는 어떻습니까? 내국인 370만명에 외국인 25만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도가 전국 제일의 관광지인줄 아십니까? 국제적인 관광지입니까? 아닙니다. 허성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금강산이 개방되었잖습니까?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금강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4월부터는 백두산까지 항로로 개방이 됩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40만원대에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백두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요금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제주도에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흠 관광객이 동남아로 다 빠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강원도에서 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강원도 지사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관광 제1번지는 강원도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무진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유보하고 있는 오픈카지노도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오픈카지노 뒤에 메가리조트, 오픈카지노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불과 한 시간 들어간 강릉에서 메가리조트 설치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국제항만공사, 양양의 국제공항공사 아, 속초입니까? 국제공항이 들어갑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그 쪽에서는 관광지 지금 폐광지역을 평계로 하여 오픈카지노를 가져다 놓은 걸 가지고 강원도 전체관광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한번 가보십시오. 산 전부 깎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공무원들 모가지 다 날아갈 그런 지경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모처럼 그 외자를 유치하여 관광개발사업

을 추진하려는 시점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송악산 관광지개발은 '94년도부터 관광지 개발대상지로 선정되고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사업자가 작년도 2월에 선정되어서 3~4차례 이상 개발사업계획, 환경 및 경관영향평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언론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공개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을 승인하니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지 담당실무자로서 상당히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과연 제주도의 미래를 위하여 도민의 장래를 위하여 송악산에 대한 이러한 논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감귤을 위주로 한 1차 산업과 관광을 위주로 한 3차 산업이 양대 생명산업입니다. 1차 산업이 24.1%, 2차 산업은 3.7%, 3차 산업이 정확히 72.2%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만약에 1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이 영향을 받으면 제주도 모든 지역의 경제가 다 무너지는 그런 유연성이 부족한 그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감귤문제에서 생긴 것이고 이제 와서 IMF가 제주도에 도래했다고 제주도민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72%나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97년도에 제주도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435만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IMF 때문에 (저희는 IMF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갖고 있던 제주관광의 어떤 문제점들, 주로 보는 관광위주로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관광개발에 소홀한 결과 그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그때 와서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에 비해서 107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관광객이 일년사이에 436만명에서 329만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0%정도 증가하여 367만명으로 증가하긴 했습니다마는 '97년도의 많았던 관광객에 비하면 지금은 게임도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관광수입은 1조원 규모로서 전체 도민총생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유명한 외국관광지들도 가족중심의 체류형 관광이라는 새로운 패턴을 따라 지속적으로 변신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유치극대화를 위해서 관광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벌써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자유치로 관광지를 개발해 가지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창출 등을 통해 경제 과급효과를 도모해야 합니다. 금년 1월말 현재 도내 실업자는 7천명 이상 됩니다. 이 중에 일할 나이 20~30대 실업자들이 2800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외자유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외국자본가에게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7백만명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구는 53만명인데다가 관광객 4백만명해서 450만명밖에 안됩니다. 250만명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외국투자가가 와서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 1년에 750만명씩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수익성을 얻기 위해서는 1년에 천만명씩 해서 10년간 들어가 주어야 수익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투자하려면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를 환영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야 들어옵니다. 환영은커녕 반대를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외국자본가들이 투자할 지역은 제주도 한 군데 만이 아닙니다. 세계지도를 보십시오. 제주도는 점밖에 안됩니다.

송악산 관광지개발과 관련한 쟁점사항으로서 송악산 분화구 지역은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북쪽 유원지지역을 집중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94년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런 개발방향은 도전체적인 관광지 개발구상으로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계획이었고, 그 당시에라도 그렇지만 정비계획이라든지 주요 도입시설은 개별적인 관광지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가지고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이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 상영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계획이 확정된 계획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송악산 이 중분화구가 희귀한 자연유산인데 자연공원법상 자연보호지구

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연공원법을 보면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용도지구로서는 자연보호지구와 집단시설지구 그 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보전지구는 송악산 지구가 자연보전 상태가 원시시설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보존할 동식물이나 천연기념물이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연보전지구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송악산지구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입장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공원시설의 집단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시설지구는 또 다시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공공시설지, 녹지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형이 잘 보존된 송악산 제2분화구 그 주변지역은 녹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경지나 방목장으로 이용되는 제1분화구 지역도 소오름지역은 보존하도록 했고 해안 절벽 보호를 위해서 해안선으로 50m까지는 시설물설치는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각종 사항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지 지형·지질분야의 검토가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 도청 환경정책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화산지질학적 측면분석이 없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지질전문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지질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제주대학교 지질전문

가 두 분으로부터 감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악산 개발과 관련해서 외국자본유치가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호텔을 설치하고자 하는 프랑스 아코르그룹에서는 지금 현재 호텔운영협정과 기술지원협정 등을 3월 24일 맺었고 앞으로 투자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것인데, 원래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자 측에서 맺은 투자협정서를 보면 향후 별도의 세부 이행협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토리그룹에서는 캐피탈-론형태로 투자를 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하신 분께서 그게 투자가 아니다 그런 얘길 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협정서에 보면 5년 이상의 론은 분명히 직접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앞으로 계획된 숙박이나 놀이시설 등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개별법에 의해서 호텔이나 놀이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개발사업자는 그런 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 등 세부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고 관련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점들은 저희도 참조를 해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악산 개발사업은 저희 도에서도 환경이 살아 숨쉬는 그런 관광지개발의 모델로 조성해서 제주 관광산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효과를 들 수가 있는데 사업이 이행되며는 전체고용인원 1,050명중에서 80%인 824명을 지역주민 중에서 고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로 하여금 군 공사비 4,810억 원 중에서 40% 이상을 직접 참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장: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마이크를 잡지 않았 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있습니다.”

한동주: “그래서 현재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외부에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데에 대해서 강력한 로비라든지 반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도세가 약한 우리 제주도가 뚝뚝 뭉쳐가지고 그들에게 맞서서 대항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렇게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다는 자체가 무한 경쟁시대를 맞은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우리 도민들의 노력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냐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송악산 개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하면서 너무 늦게까지 시간을 끈 것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예, 한 투자진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자연보호협회 신상범 제주도 지부장님께서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신상범 (자연보호협회 제주도 지부장): “예, 신상범입니다. 이 지역주민도 말씀을 했고 도당국과 남군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개발로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개발이 잘되어서 우리 제주도민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이 따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된 논제를 저희들이 꼭 지켜보는 과정에서 혼돈되는 부분이 있는데, 송악산지구 관광개발이라고 하나로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대정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한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개로 확실히 나누어진 사업입니다. 송악산지구 개발사업하고 마라해양군립공원 집단시설사업 두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마라해양공원 지구내에 송악산 분화구 지구 집단시설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 글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송악산지구 개발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대정주민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유재산을 소위 약탈되다시피해서 그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제주도 관광자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행정당국이 오히려 미흡하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단,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분

화구 지구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한동주씨도 얘기를 했지만 '9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송악산 개발계획은 어떻게 행정이 너무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개발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송악산 분화구에 관한 것은 지난 해 8월 이후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8월 이후에 생긴 일이 너무나 빨리 추진됐기 때문에 송악산 분화구지구에 대해서 문화재 보존문제라든지 보호해야 하든지 하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사이도 없이 추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단이 분화구에 대한 개발계획이고 그 분화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면서 지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해야 하고 원시적인 상황이 보존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산업개발에 의해서 파괴되지 말아야 하고 파괴될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공원의 관리를 위해서 사유지가 공유지보다 적어야 된다. 이런 시설기준에 의해서 군립해양공원에 분화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정된 직후에 (어떻게 보면 지정되기 전입니다 마는) 그 지역전체의 90%를 집단시설지구로 산업개발할 지구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공유지가 51%이었는데, 사업승인을 하기 직전에 공유지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오히려 사유지가 64%에 해당되게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초 해양공원으로 지정할 때의 자연공원법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개발특별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을 가지고 어떤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충실하는 것이 사회발전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 절대보전지구가 있습니다. 절대보전지구에는 그 자연의 원시성을 보전하고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원상을 훼손하게 되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 안에 놀이시설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절대보전지역 안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허가를 받아서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지금 사업승인을 제주도가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법에 의해 제주도가 보다 진취적으로 발전하려는 의도를 왜곡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 경위라는 것에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밝혀진 걸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령 그 지역이 도시공원이었습니까. 도시공원은 모든 시설이 엄격히 규제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갑자기 8월 달에 가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해양공원으로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되고

변경신청을 8월에 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이 '99년 10월 1일에
 됩니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해양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결정된 다음에 조성계획을 만들고
 그 조성계획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의 관례입니
 다. 그러나 묘하게도 이 사업만은 신청되어야 소위 그 해양공
 원으로 되어야 이런 집단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도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마치 배속에
 있는 아이에게 예비고사 시험답안을 내주고 답안을 쓰도록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일반사람들은 이게 어
 떠한 이유에서 그런 건지 또 송악산 분화구지구 개발이 그냥
 순수한 것인지 그런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에 따라서 이 사실이 밝혀지자 전국에 있는 지질학자들이 그
 송악산 분화구의 소중함을 귀중함을 또 세계자연유산임을 밝
 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르던 보석을 증명해준 것
 입니다. 마치 방송에서 진품명품을 가려내듯이 정말 제대로
 감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송악산지역을 개발한
 다면 정말로 세계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런 취지하에서 저희들의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정주
 민을 위해서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
 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송악산지구가 땅을 다 팔았기 때문
 에 사유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라해양공원 송악산지구 개발계획에 보면 생업

을 위한 지역주민은 무상출입이 되지만 그 외에는 전부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주민의 공동재산이 아니고 이제는 사유재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대정의 진실한 발전을 위해서 제한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성산 일출봉 입장료가 1년에 한 11억 정도 받습니다. 산굼부리가 13억 정도 받습니다. 산방산도 10억 정도 받습니다. 그것은 입장료만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훼손하나도 안하고 그렇다면....이 송악산은 대정주민들이 전부 사들이십시오. 그래서 분할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팔린 것도 원가로 다 되돌려 받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것을 자원으로 하고 그 주변에 시설을 해서 대정주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환경단체에서는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어느 대정주민을 골탕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대정주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정주민들이 잘 생각해서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에서 바꾼 제주도 관광개발협의회 한광문 사무국장께서 토론에 나오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광문 (제주도 관광개발협의회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광개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있고요, 세화·송당 온천

관광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비통함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이맘 때쯤에 기공식을 할 예정이거든요. 과연 또 이런 환경단체가 저희들한테도 반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예 그런 우려는 접어 두고요. 제가 제주관광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 송악산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관광산업에 앞서 지역산업을 보면 2차 산업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1차 산업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산물가격도 많이 하락되고요, 또 그에 따른 농가 부채도 많이 늘어나서 1차산업 농사에만 의존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감귤가격이 많이 폭락했습니다. 감귤 농사짓는 사람들 한숨만 내쉬는 게 사실입니다. 그 대신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인구는 네 가정 중에 한 사람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비중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한 담당관님께서도 얘기했지마는 3차 산업이 총 생산액의 72%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3차 산업은 여러분들한테 혹은 도민들한테 상당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있는 자원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 이제까지는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여러가지 여건상 타 관광지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산업이 무너지게 된 경우는 이제 우리 도민들 아니면 국민들 해외사람들 의식 가운데 보는 관광은 식상해 있습니다. 뭔가 즐길 수 있는 테마가 바탕이 된 그런 관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일자 제

민일보를 보신 분 좀 있을 것입니다. 수학여행도 제주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등 여러가지 행사관계로.....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광산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이런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은 '생명산업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광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72%인데, 여러분들 관광산업 때문에 솔직히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 안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안됩니다.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제주도를 개발한다면 자기 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미 공군 클라크 기지가 이전을 합니다. 1억만평이라고 합니다. 1억만평에 테마공원하고 골프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요, 1주일 가는 거 5만원에서 7만원 돈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골프치고 오는데 5~7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전체비용? 3박 4일 오는데 60~70만원, 100만원까지 듭니다. 외국이요? 필리핀 이런데 가면요? 1주일 이상 살아도 100만원이상 안 듭니다.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제주도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관광수입을 기대하고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입니까? 그리고 3개 단지 20개 지구 개발되고 있는 데요. IMF 이후 저희 3개 단지 20개 지구 중에서 이미 공사하다 중단된 함덕지구, 성산단지, 표선

단지, 그리고 중문단지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묵혀 두어선 안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관광에 대해 활력을 넣으려면 사람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저번에 한번 언론에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1인 우리도민 한 사람이 열 관광객 모셔오기 운동 이런 운동이라고 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전화해서.....아 제주도 이제 좋고, 가격도 이제 경쟁력이 맞고 해서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좀 내려오시라고 해 가지고 내외적으로 제주도민이 5명씩만 유치하면 1,000만 명은 금방 넘습니다. 이런 운동은 왜 안 펼치고 이런 식상한 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요, 저도 캐나다, 미국 가면서 외자유치를 하려고 사정도 해보았습니다. 진짜 이걸 구걸이었어요. 제발 투자 안 해도 좋으니까 제주도 한번 왔다만 가십시오. 제주도에 왔다 갔습니다. 겨우 겨우 사정을 해서..... 그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최고입니다” 그 분들이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밴쿠버’입니다. 밴쿠버에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제주도에 왔었어요. 그러나 인문환경과 투자환경은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인문환경 즉, Communication이 안 통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여건, 지역주민 우리 옛날 섬사람, 폐쇄적인 생각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와서 땅을 사면 그 땅이 어디 갑니까? 그 땅 제주도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 땅에 시설물 설치하면 그 시설물 어디 갑니까? 우리들이 나중에 결국 영위하게 되

는 것입니다. 저희 미라지 호텔 관계자들이, open casino 얘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제주도에 왔었습니다. open casino가 되면 약 10억불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이것도 물 건너갔습니다. 강원도에 밀려 가지고 물 건너갔습니다. 강원도....아까 진흥관님이 얘기했지만, 강원도 지금 카지노 짓고 있는 정선, 태백 가보십시오. 산을 전부 깎아 내립니다. 그리고 오색온천에 가보십시오. 산 하나 그 자체가 공원입니다. 산을 깎아 만들었어요. 강원도라고 환경단체 없겠습니까? 강원도라고 이렇게 시민단체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관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들 관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받아드립니다까?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관광에 의해서 앞으로 벌어들이는 돈 그 돈 가지고요, 우리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을 시켜야 돼요. 일본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서 앞으로 세계 어디서 어느 사람이 오던 간에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좋긴 좋네요. 뭐, 마지막에 하니까 시간 좀 더 할애해 줄 거란 생각도 하고요. 아까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정상배 국장님도 얘기한 부분, 예...관광객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몇 명이나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연 2천명, 3천명 이상 조사를 했을까요? 불과 1~2백명 아니면 몇십명 표본조사 했겠죠. 이걸 가지고 전체 관광객의 의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투자협정 아까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요. 투자협정요. 그건 어떤 단체와 국가간에 아니면 회사와 국가간에 기밀일 수도 있

어요. 이거 어떻게 공개합니까? 우리 서명식하고 언제 들어오니까 앉아서 서명하는 거 보러 오십시오. 그건 억측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가 늦게 대응해서 사과한다고 했는데요. 이걸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미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 지역주민들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 단체들이 지역주민의 생존권까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상범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산 일출봉이 11억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죠? 그럼 좋습니다. 대정읍민들께 다 사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 송악산을 그대로 놓아두고 1년에 11억을 벌 수 있을까요? 입장료?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이것도 대안이라고 제시하십니까? 말도 안됩니다. 물론 저희 사업자들도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기 전에 미리 선진국의 좋은 것도 보고 선진국을 시찰하여 좋은 것, 오히려 그 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공해, 오수, 배수 이런 문제요. 더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행정기관에서 허가도 안 해주지만.... 앞으로 자동차 공해문제는 없어집니다. 미국에서 개발됐어요. 한 20만원 상당의 장치만 부착하면 공해 안 나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환경문제는요, 점점 더 발달되어 갑니다.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요. 환경? 환경과 가장 조화롭게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자가 무시할 것 같습니까? 왜? 그것 무시했다가는 관광객들 안 옵니다. 외국인들? 안 찾아와요. 그들 구미에 맞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 구미

에 맞게 해주려면 ‘진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자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위기감 가져야 됩니다. 집에 가서요, 여러분들의 친지들에게 전화해서 제주도 와달라고 눈물로 하소연해야 됩니다. ‘개발이니 뭐니’ 이런 식상한 논제를 가지고..... 개발해야 됩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저희들도 환경부문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제가 좀 격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송악산 개발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이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섯 분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좌장의 입장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간이 자꾸 지체된다고 사인을 보냈습시다마는 어느 한 분도 지켜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중대한 그리고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당초 배정한 7분 이내가 무리였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고요. 또 2부 그리고 종합정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분들이 준비해오신 모든 내용을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주최측을 대신하여 저희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토론하는 과정에서 토론자와 또 방청석에서 잠깐 교성이 교환이 되긴 했습시다마는 두분 다 곧 자제를

해서 토론진행에 지장을 안 준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번 토론의 여섯분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바로 개발을 해야 된다'와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분화구개발은 안 된다'와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보존을 전제로 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토론자 여섯분들간의 어떤 의견의 합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는 합나다마는 그러나 그 동안 이러한 그 예민한 사항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그 갈등 당사자인 지역주민, 사업자, 그리고 환경단체와 행정당국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서로 고민을 털어놓은 그 자체만으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의 내용이 앞으로 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 갈등 당사자들의 갈등을 적절히 관리해 줄 수 있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토론을 해 주신 여섯분과 그리고 오랜 시간 조용한 가운데 경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 1부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수일 (대정읍 개발협회장): "커피타임 1분만 얻겠습니다. 저는 대정읍 개발협회장 강수일 입니다."

좌장: "아-잠깐만요. 어딥니까?"

강수일: "여깁니다. 여기"

좌장: “아니 무슨 내용 말씀이십니까?”

강수일: “예 대정읍 개발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좌장: “무슨 내용 말씀이신가요?”

강수일: “송악산 개발에 관한 얘깁니다.”

좌장: “아, 그러면요, 나중에 종합정리시간이 있습니다.”

강수일: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 오늘 아침 10시에 대정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갖고 자생단체 40명이 모여서...”

좌장: “일단요, 토론회 1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일: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언읍시다. 대정읍민 2만여 명 읍민은 오늘에 난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오랜동안 한 속에서 살아 온 우리 주민들이 이제 겨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처사에다가 환경단체에서 언제 얼마나 아꼈는지 지역주민보다 그 지역을 얼마나 아꼈는지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 돌아가서 우리들이 365일 개발하는데 친환경적이 아니면 우리들이 못 하게 막겠어요.”

토론회 제2섹터

좌장 (제주대학교 서경립 교수): “제1부에 보니까 좀 흥분하는 분들도 많고 흥분 속에서는 사실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결국 감정만 상하다 보면은, 우선 토론한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흥분하지 말 것 자기 주장을 그대로 밝혀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보니까 동서남북을 섞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보니까 정말 논의를 할 것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께서는 가급적이면 논의 범위를 제1부하고 제2부를 한정시켜 가지고 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와 저널리스트들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김수종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신문사의 아주 급박한 사정으로 여기 오시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분이 이 메일로 해서 자료를 보내오셨습니다. 그것은 이장춘 교수님의 발표 전에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해주실 네 분의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훈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배 제민일보 기획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멀리서 오신 윤성효 부산대학 지구과학과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장춘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에 10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럼 시간은 제한하겠습니다. 저는 가차없이 10분 지나면 마이크는 끄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가차없이 말리겠습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영훈 교수님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 간단히 발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논쟁이 상당히 뜨거운데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송악산을 사랑하는지를 한 시간동안 지켜봤는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부분은 다시 말해서 그 지역사회발전연구소의 장성수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송재호 박사님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분이, 그런 송악산 어떤 개발이라고 대안에 대해서가 아니고 도가 조정자 역할을 다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만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그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을 어떤 위협 속에서 발표하는 한 시간 동안의 모습을 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의 조정자의 역할을 Rahim이라는 미국의 컨플릭트(conflict), 갈등에 관한 최고의 저자입니다. 그 사람 이론을 빌려서 간단히 설명하고 이것을 송악산에 한번 대입시켜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Rahim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송악산 개발문제처럼 복잡한 문제를 서로 그 이익단체들과 업자측에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고 하면 조정적인 접근방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tergrating Approach’라 그러는데 자신과 상대방이 관심이 상당히 높을 때 조정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라. 다시 말하면 자신은 도고 상대방은 업자라든가 사업자 그 다음에 환경단체

여러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Obliging Style’이라고 해 가지고 호의적 접근방법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 상대방은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송악산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방법이 뭐냐고 그러면 지배적이면서 위압적인 접근방법, ‘Dominating Approach’라 그러는데 자신은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상대방은 낮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Dominating Approach’를 사용해봐라, 근데 이것도 송악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회피적인 접근방법 ‘Avoiding Approach’라 그러는데 자신과 상대방이 모두 낮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송악산 문제 논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충적인 접근방법 ‘Compromising Approach’ 자신과 상대방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을 때라고 Bonoma Rahim 교수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송악산 문제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송악산 문제는 도에서 조정자적인 역할을 했을 때 해당될 수 있는 조정적 접근방법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Rahim교수는 몇가지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섯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문제에 대한 공개가 충분히 있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정보의 교환은 서로 있었는가? 세 번째는 상대방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는가? 네 번째를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이 깨끗이 풀렸는가? 자, 마지막

으로 보면은 민권의 뜻을 파악하고 있는가? 이 다섯가지를 파악해 보면은 지금 송악산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대충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보면 '당사자간의 문제에 대한 공개가 충분히 있었는가'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간자적인 그 어떤 조정자적인 역할을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남제주군에게 넘기고 그 다음 도는 뒤에서 조정자적인 꼭두각시 흉내만 내고 있지 않나 좀 더 도가 문제의 공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오늘 상당히 좋은 토론인데 이런 토론도 오늘 말고도 사전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지금까지 뒤에서 방관만 하지 않았나'로 봤을 때는 도에 대한 공개에 대한 방법이 모자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의 공개에 대한 관점에서 도의 입장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제가 여기 읽는 것은 오늘 그 논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것은 제가 100%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제가 쓴 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공개에 대한 관점에서 도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계속된 방관에서 오는 도민들의 의혹의 증폭 즉, 승인을 둘러싼 후 전, 현재 남군수 그리고 도지사와 남제주 리조트와의 관계의혹 등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발에 대한 부추김과 정당화, 지역주민에 대한 투기성 조작, 그리고 외국자본에 대한 숭배감만 높여 주지 않았나? 본인은 그 Rahim 교수의 이론을 썼을 때 이런 게 현실적으로 문제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번째 보면

은 '정보의 교환은 서로 있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정보의 교환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 도는 남제주군과 남제주 리조트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환경단체와는 정보의 교환은 물론 환경단체·학계에서 주장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묵살함으로써 인하여 정보가 스스로 소통될 수 있는 통로를 도가 스스로 묵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토리와 아코르 회사가 투자의향이 없고 관리적인 측면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도 도에서는 확인 한번 없었고, 현재 투자중인 돈은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돈이 아니라 시중에 나도는 'Black Money'라고 하는 소문도 있는데 이에 대해 일반 도민들 앞에 한번 검증을 거쳐서 어떠한 돈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뒤에서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듯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자, 세번째 보편은 '상대방은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는가' 서로간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제가 보기엔 방관, 남제주 리조트와 남제주군은 외자든 black money든 돈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식에서는 조금 벗어난 개발위주의 정책, 그리고 몇몇 교수님들은 돈 때문에 정책평가가 왔다 갔다 한 점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환경단체는 어떠한 자기 주관을 갖고 환경적인 개발고수, 주민은 눈이 어두워서 제가 보기에는 갈팡질팡, 지금 아까 그 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정읍민의 전부, 그 대표적인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편견 가운

데 송악산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착공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됐을 때 송악산 관광지 개발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대형 개발 다시 말해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며 갈등은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선 자치 시대의 어떠한 진면목을 보여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오해의 소지가 될만한 것들이 깨끗하게 풀렸는가?' 제가 보기에는 방금 전에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악산 개발을 둘러싼 오해의 소지가 전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서로 간의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당사자들은 자신만의 승리, 학계에서는 (Lose-win strategy) 상대방은 죽어야 되고 자신만은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전력 질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왜곡하게 되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지금처럼 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은 상대방을 부정적인 스테로오타이프로 전환시켜서 항상 보게 되어 심리학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제주도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도는 개발방조자, 남제주군은 개발협조자, 사업자는 개발업자, 환경단체는 맹목적인 환경보존단체로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이렇게 사업주최라든가 목적에 따른 확고한 목적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도는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의 전형적 타입인 위협적(지배적)인 방법을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행정은 부정적 이미지만 계속해서 쌓여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환경단체는 Rahim 교수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까. 법에 호소하게 되고 갈등의 뿌리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Rahim 교수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듯이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권의 뜻을 파악하고 있는가' 송악산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어도 도민이 바라보는 송악산에 대한 여론조사 한번 제대로 된 거 보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제주군 홈페이지에 송악산 개발 관련 글을 제가 계속 올리면 성실하게 답변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게 어떤 전자 민주주의 근본을 흐려 놓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재미있는 글이 있어 가지고 [namcheju.net]에서 간단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온 사람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악산 리조트 개발 사업에 열심히 노력중인 사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그 곳에다가 투자를 하다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도권 과천 서울랜드라든지 드림랜드, 에버랜드 등 평일에는 평평 쉬고 있는데 제주에 건설되는 위락 시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제주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될까요? 시설비나 제대로 건지고 가실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서는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

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사업구상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것도 잘못입니다. 사람들이 제주에 올 때 바이킹 타고 롤러코스터 타러 오는 줄 아십니까? 웬지 제주에 가면 신선한 공기, 수려한 자연환경, 한눈에 펼쳐지는 푸른 바다를 보고 싶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중략--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요. 송악산 개발을 백지화를 시키겠다는 움직임이 동네 사람들이 절대 반대를 했다고 언뜻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대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놈의 돈, 돈, 돈 동네 사람들이 돈을 정말 정주영이나 이병철 마냥 왕창 벌고 싶은 모양이겠지만 송악산 주변의 사람들은 돈을 결코 벌 수 없습니다. 돈을 왕창 벌고 싶으면 서울에 올라가서 돈을 버십시오.>라고 애절하게 서울에 사는 시민이 써 놓은 글을 보고, 우리는 개발을 하든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든 간에 이러한 점은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제한 때문에 전부다 읽어 드리지는 못하고 저의 주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ahim 의 이론에 대입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분명히 제가 쓴...네 저기...(나중에 공식적으로 토론시간에 얘기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시간이 있으니까...)....저는 얘기할 권리가 있습니다...저는 얘기할 권리가 있습니다...네.....그 다음에 제가 주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네 ..맞습니다. 환경정책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푸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지금 아까 신상범 선생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송악산 개발이라는 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중문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저는 조사 안 해 봤지만 항간에 떠드는 말에 의하면 주민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제가 제주대학교에서 환경정책을 가르쳐서 학생들이나 세미나에서 말하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배우는데 거기 보면은 시간간 상충하고 부분간 상충이란 말이 상당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송악산이 개발되었다고 칩시다. 그랬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아까 그 이장님도 상당히 좋은 얘길 하던데 그 다음에 부분간 상충이란 게 뭐냐면 한 부분이 송악산 개발이 놀이기구 시설이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한 부분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다른 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시간간 상충이라는 소리하고 부분간 상충이라는 소리를 지금 개발업자라든지 아니면 환경단체라든가 전부 이점은 앞으로 제주도 개발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숙지되어야 될 부분, 시간간 상충...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책임, 한 부분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 문제점...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장자의 제물편에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니다. <그림자의 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물었다. 아까는 자네가 가더니 지금은 자네가 서있고 아까는 자네가 앉아 있더니 지금은 자네가 일어나 있으니 어째서 그렇게 지조가 없는가?> 무슨 소리가 하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은 그 환경정책이라든지 개발에는 지조가 있어야 한다..지조.. 자 그러면서 도지사님도 보면은 환경백서에 보면은....여기 보면은 상당히 그 친환경적인 개발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상당히 고민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간 제한 때문에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피지만 쭈대 없는 꽃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자연과 역사는 말이 없지만 난 개발의 책임을 알 것이며, 대안이 없으면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게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좌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배 제민일보 기획실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김종배 (제민일보 기획실장): “저는 제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는 김종배입니다. 저는 송악산 개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과 보존과 그리고 환경문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지역 언론인으로서 그 기준의 어려움이라든지 혼란스러움을 항상 느끼고 있다는 게 솔직히 제 심정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그 조화 문제를 말 그대로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제주지역이 처한 경제적 환경, 그리고 열악한 도세

등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제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발과 보존문제에 이르면 언제나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각에 개발보다 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음을 미리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존된 자연경관은 어떤 최상의 개발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시설물도 자연을 결코 앞서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먹고 잘 수 있는 시설물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누가 설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연파괴의 최소화에 그쳐야 하고 경관지의 시설물의 조건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며 개발사업자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을 승인하는 행정기관에서도 개발과 보존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자기 철학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의 개발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제주도내에서도 가장 경관이 수려한 곳만을 골라서 시설물을 집중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대로 개발이 계속될 경우 제주지역의 주요 경관지의 대부분이 훼손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는 타 지역이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경관지에 호텔이나 관광위락시설을 지었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에 제기된 송악산 관광지개발도 바로 그런 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악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논제 발표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그럼에도 지난 25일 거행된 송악산개발 기공식에서 남제주 리조트 총회장의 인사말을 보면,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송악산 개발에 임하는 의식을 다소 엇볼 수가 있습니다. 총회장의 인사말은 금강산도 개발하는데 송악산을 개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금강산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환경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극히 일부 제한된 장소를 통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금강산 전체가 대대적인 개발이 되고 있는 양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시각이 송악산 개발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면 상당히 우려가 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아래 송악산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는 나중 어떠한 결과를 낳겠습니까? 아무리 환경보존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환경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개발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반드시 마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개발계획서를 차분히 들여다본다거나 그러한 안목을 조금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개발사업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외자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검토과정도 없이 또한 많은 의혹이 현재까지

남아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에서의 말씀은 그동안 충분한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보고회가 있었는데도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려운 외자를 유치해서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벌이는 이 시점에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지장을 준다면 사업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상식적인 견해에서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여러가지 과정을 통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재검토의 기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제주가 안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청정자연환경을 유일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제주지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며 언제 어느 때라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환경보존에 문제점이 있다면 나중에 언제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자연환경의 파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일단 개발이 시작되면 환경보존은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쉽습니다. 개발허가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환경은 2차적인 문제로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악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입장은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현세에서 개발하지 못했지마는 오히려 그 곳을 잘 보존했다가 나중에 후손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 줄 경우 나중에 그 곳은 회소가치 면에서나 생태적 또는 학술적인

면에서 큰 자산이 오히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악산은 위락 중심의 개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 중심의 관광지로 개발을 하되, 그것도 분화구안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는 게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네..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윤성호 부산대학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윤성호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예 저는 송악산이 왜 중요한가 신문에서 이중 분화구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떡해서 이중분화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부탁을 받은 것 중에 그러면 제가 일전에 기자 분이 연락이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기본적인 소신은 그 일대를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송악산 주변을 개발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질에 대해서는 OHP를 사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질을 전공하는 사람이 맨 처음 얘기할 때 지질도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대가 송악산 분화구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이 일대에서 넓게 대정읍 근처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여기서는 용암대지 현무

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암대지 현무암이 북쪽에 넓게 분포하고 있고, 해안 쪽의 응회암 하부에 일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포하고 여기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두번째 나와 있는 게 송악산 응회환이라고 부르는 1차 분화구의 산물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분화구의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두께가 두껍고 멀리 갈수록 아주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도 어느 정도 되고 얼마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온 분출물이 송악산 분석구라고 해 가지고 중간에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에 현재 거의 정확하게 368개 정도의 그 오름이 있습니다. 작은 산들, 기생화산들이 그 중에 약 10개 정도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응회환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358개 정도는 송이를 가지고 있는 분석구입니다. 분석구는 암석이 아니고 그냥 토양을 모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2차 분화구에 해당되는 송악산 분석구가 있고 다음 그림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까맣게 돼 있는 겁니다. 1차 분화구의 외륜선과 중앙에 있는 송악산 2차 분화구 사이를 용암이 나와서 이렇게 고여 있는 것입니다. 고여 있고 이게 본래의 지역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2Km 정도 됩니다마는 이 면적이 한 4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지역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은 회침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고 이런 응회환에 해당되는 지역은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외국에 있는 것은 생긴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이런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내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주 정부에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이런 큰 옹회환이 있으면서 그 거의 4분의 1을 절개해 가지고 나온 것을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이 단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해안 절벽에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2차적으로 그 뒤에 생긴 퇴적층들입니다. 이 단면은 지질도에서 북서쪽 한라산의 중심이 있는 쪽하고 남동쪽 바다입니다. 요 파란 것은 바다가 되겠습니다. 남동쪽으로 단면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분화구에 해당되는 송악산 옹회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서쪽은 그 단면이 완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 남동쪽은 끊어져 가지고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이라는 것은 산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외륜선의 정상 부에서 여기서의 최고 두께가 85m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링에서 여기는 없어졌지만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링에서 링까지의 거리는 8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부에서 말단부까지 옹회환이라고 하는 것은 화산재가 모여서 굳어져 있는 것이 고리처럼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중심에서 말단부까지 2Km이기 때문에 1차 분화구의 본래 크기는 4Km정도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있는 송악산 분석구는

기저직경이, 기저직경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기저직경이 70m × 600m 고 일부 밑에 내려간 것은 가상을 한다고 하면은 약 최대 670m까지 가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는 이 송악산 높이에서 104m 가 되겠습니다. 그 중심부에 들어 있는 송악산 분석구의 분화구의 직경은 직경이 160m 깊이가 68m가 돼 가지고 중심부는 해발 35.4m 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거치는 것이 왜 중요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악산 이중 화산구의 형성과정을 쪽 보면 맨 처음 나온 게 이게 옹회환입니다. 옹회환이라는 것은 화산재가 모여서 만들어진 고리라는 것이죠.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화산 지질학적으로는 수증기 마그마 분출이라고 이야길 합니다. 그래서 왜 수증기 마그마 분출이라고 하나면 이런 화산재가 나올 당시 이 지역의 수심이 약 5m 정도 되는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마그마가 암석에 녹아 있는 마그마가 쪽 올라오다 보니까 해수가 유입이 돼 가지고, 온도가 1000℃ 정도 되는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니까 그것이 파서가 되어 가지고 화산재가 되어 가지고 아주 새까만 재가 날라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지게 되니까 해수가 유입되는 게, 이 안에 마그마가 만날 수 있는 것은 해수에서 지하수의 단계로 바뀌어가면서 차단되다 보니까 물의 양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작아지면서 그런 폭발력을 가질 때 마그마가 많은 수증기,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 마그마 분출이라고 하고 그 단계를 지나 가지고 이게 그 어느 정도 산을

쌓아 가지고 제방의 형태가 되니까 물이 점점...들어갈 수도...
 해수도 못 들어가고 지하수도 이 자체 내에..이 자체 내에 있던 지하수도 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마그마가 물을 만나서 폭발하는 그런 여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마그마 자체는 우리가 있는 제주도 같으면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땅의 제일 바깥쪽 사과 나무껍데기 정도 되는 지역인데 깊이가 한 32Km정도 됩니다. 마그마는 그 보다 더 깊은데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올라오면서 마그마 자체의 안에 들어 있는 휘발성 성분의 폭발력에 의해서 폭발해 가지고 쌓여 있는 게 중심부에 있는 분석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스트롬볼리안 분출이라고 이야길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면서 이런 마그마내의 휘발성 성분을 가진 것들이 폭발하고 나니까 물하고 만날 수도 없고 마그마 자체의 가스 함량이 다 소진 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마그마만 흘러 나와 가지고 이 사이를 이렇게 충전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충진을 하다 보니까 본래의 이런 상태에서 이런 용암의 단계는 모태 용암이라 하고 또 용암 호수다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요런 지역이 되니까 이게 상당히 무거운 게 이렇게 올라타 가지고 밀게 되니까 이 부분이 환상의 어떤 단층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삭 밀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이게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밑에 해냈습니다마는, 이 송악산 이중 화산구는 화산 윤희의 규칙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조금만 올려주세요....글이 보이게 ..쑥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보십시오..그래서 이 화산의 규칙성은 수증기 마

그마 분출을 하는 어떤 해수와 만나서 생기는 화산재가 쌓여 있는 상태여서 해수보다는 물이 더 적은 지하수를 만나서 쌓여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외부의 물의 유입이 없이 순수하게 마그마 내에서 휘발성 성분에 의한 그런 폭발력을 가진 분출상태에서 휘발성 성분을 소진하고 남은 게 올라오는 그런 단계를 나타내는데, 이제 물에 기인하는 화산작용의 요소가 있다고 이야길 합니다.

에...들으십시오....그래서 수인성 화산작용의 요소가 감소되는 어떤 분출 유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화산체입니다. 전 세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이러한 화산 지질을 나타내는 지역은 없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왜 그러면 그 지역에 그게 나타나 있는가 그 위치가, 지형적인 위치가 해수와 만날 수 있는 그 근접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옹회환에 해당되는 것은 이외에도 수월봉도 있고 용머리 해안도 있지 마는 그런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아직 몇 분 안됐어요...그래서 대안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어이..이 사람아 내 처제도 그 지역사람이네..) 지금 송악산이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지마는, 이중화산이 왜 중요한지 데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아 그런 거구나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언론에서 이 지역의 해안이 계속 붕괴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후퇴한 게 뭐가 하면은 해안에서 50m를 후퇴해 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화산구의 이 옹회환의 가장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콘도를 짓도록 되어 있고 분

석구, 송악산 분석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관광진흥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알 오름을 그대로 놔두겠다, 이렇게 이야길 하는데 이 알 오름 지역에 놀이공원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공원, 호텔 이런 게 들어서면 당연히 이 지역을 걷어내어 가지고 평준화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이 외각으로 이전하라는 겁니다. 이 선이 왜 이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그 새 발자국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져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이,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이 바깥쪽에다가 관광시설을 하면 여기서 가파도, 마라도 선착장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송악산.....(장내가 소란해짐)”

장성수(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자자..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회의를 주최한 지역사회발전연구소의 소장으로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좌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해하는 분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잠자코 들으시든지 결정을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청회도 아니고 이게 발표된다고 해서 정책에 반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논의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조금 가만히 좀 계십시오.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두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의를 많이 제기합니까?”

윤성효: “예..2~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악산 서두에 좌장을 맡으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송악산 분화구, 도에서 얘기하는 2차 분화구를 보존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2차 분화구만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분화구의 분석구가 생기고 거기에 있는 용암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그 용암을 걷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1차 분화구, 2차 분화구 거기 있는 용암 이 세 가지가 다 그대로 있어야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면 이 안에 개입되어 있는 이것을 이 바깥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여기다가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송악산 분화구가 마치 뭐처럼 되느냐 하면 성산 일출봉, 일출봉 앞에 과거에 호텔이 있었지만 거기에 없어 졌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공지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다가 입장료를 받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그건 차후 문제지마는 이 지역을 도보로 순환하면서 이 지역의 이전 화산, 아주 유명한 화산지질을 나타낸다는 것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분 안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송악산 2차 분화구까지 그대로 보존하면서 여기 있는 가파도, 마라도 가는 선착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송악산, 용머리 해안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연계하면서 이 지역에 대단위 위락시설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면 이런 지역은 보전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즐기면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마지막으로 이장춘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공청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이 되었다고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 형식을 띤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토론회를 갖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청중께서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우리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용해서 이것을 다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조용히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춘 (경기대학교 교수):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스스로 반문을 해봤어요. 아..이 마이크 나옵니까. 들려요? 아마 이 자리에서 쪽 보니까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 할 때에 그 외국의 학자들이 많이 왔죠. 그 때 국내 학자들도 많이 왔는데 그 당시에 신제주 그랜드호텔에서 했어요. 그 때에 참여했던 분들을 떠올리니까 지금 플로어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 이제 앞에 아까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별로 낮익은 분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그 때는 열기가 높았고, 제주도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서 방청을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견해가 제주도가 그 동안에 많이 빼앗기고 또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아주 육지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제주도를 그냥 내버려둬음 좋겠다 육지에서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했음 좋겠다 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 대다수 지역 정서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쪽 지켜보니까 앞으로 아마도 '제주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들이 대단히 강렬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주도는 앞으로 잘 개발이 되고 또 관광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겠나, O.K 이렇게 크게 제가 기대를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논쟁이 됐던 그 태백지역 거기 가서도 세 시간 동안 제가 사회를 봐서 태백시장 불러 놓고 사회 단체장 불러 놓고, 또 다 나왔습니다. 관계주민들 나와서 토론도 해봤고 또 이제 일본에서 하우스팀 버스 나가사키현에 어떤 그 매립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관광 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테마 파크가 잘 됐냐 못 됐냐 하는 것도 제가 초대받아서 한국 학생들 50명 데리고 가서 그 평가를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참석을 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이런 평가도 해보고 또 자문도 많이 해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서 나온 송악산에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고 그 다음에 기사 나온 것을 좀 봤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한 것 들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간단하게 느낌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동안에 관광개발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관광개발 해 놓으면 인간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아니면 개발하면 불행을 갖다 줄 것인가, 이 문제가 논의가 돼야 할텐데 일반적으로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관광개발이 상당 부분 많은 실패를 했고 또 상당 부분은 또 성공을 했어요. 모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도 했고 또 실패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한번쯤 되새겨 봐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모델을 제가 과거의 사례가 이랬다 관광개발이 행복도 가져왔고 불행도 가져 왔다, 또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발을 해 놓으니까 이런 건 좋았는데 이런 건 나쁘다 동시에 문제가 제시된 경우도 있었다. 이제 그래서 항상 개발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개발의 이익이 부의 효과를 앞지르는 것이냐 그랬을 때 그 개발을 해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판단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갈등이 많이 표출되고 했을 경우에 이런 것을 개발해 가는 어떤 방향이 과연 뭐겠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 대안을 드린다면, 먼저 제주라고 하는 어떤 정서 그 다음에 아까 그 대정지역 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 역사 다 아까 다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여러가지 모델들, 나와있던 제시된 모델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모델인가 이랬을 때 제가 아까 물어 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그럼 이런 모델로 해서 개발이 됐을 때 개발의 이익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연차별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환원되느냐 하는 계량적인 10년, 20년의 지표가 나왔냐고 제가 물어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런 개발이익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현재 수립이 되어 있느냐 물어

봤더니, 마케팅 전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럼 마케팅 전략이 없이 어떻게 개발에 들어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마케팅 전략을 지금 챙겨 보시라. 마케팅 전략을 짜서 목표시장을 설정해 보고하게 되면 이 지역의 개발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인가 하는 거꾸로 피드백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과연 기대했던 그런 기대이윤을 갖다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과연 다른 대체상품은 없는 것인가? 대체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놀이시설이 상품이라면 그 놀이시설이 현재 위치가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놀이시설이 최선의 대안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나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관광행위를 해오는 과정에서 사전에 많은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잘 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조절했느냐 인간이 쓸 수 있는 좋은 땅은 다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고 나쁘고 황무지, 못쓰는 땅을 무용지를 개발하자! 세계에서 가장 잘 된 성공된 관광단지가 바로 그런 무용지를 개발해서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사례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도 있습니

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부탁하건대 그런 무용지를 개발해서 가장 인간이 친환경, 친자연적으로 개발모델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분명히 지구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개발에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개발사업자 그리고 행정의 선도기능, 그 다음에 갈등에 조정기능 그리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다 같이 한번 조심스럽게 다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시고 어떤 길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김수종 한국일보 논설위원께서 직접 참석을 못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는 유인물로 이 메일로 해서 여기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자기가 이제 그 김수종씨께서 안덕면 출신이라고 하는 것, 특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좀 보존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요약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제가 그 서두에서 다른 여러가지 말고, 우선 제1분 화구하고 제2분 화구내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요구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마침 몇 분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저....제1분 화구, 제2분 화구 있는 곳은 그야말로 가장 귀중한

관광자원이다, 근데 이걸 잘못 건드려 놔다가는 관광자원도 망가지고 따라서 그 후에 장사도 제대로 안 된다, 사업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조심스런 걱정을 우리가 표출하는 그러한 장이 되겠고, 그것에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발표하는 여기 선생님들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 외각으로 시설물을 옮기는 것이 참으로 그 관광지를 제대로 되기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조심스러운 대안들을 사실은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논의는 아무리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논의는 우리가 한번 거치고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나중에 일이 잘못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과연 너희들은 뭘 했느냐 이런 논의라도 한번 해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을 때 후손들이 물을 때 과연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가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도 제1부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고 그야말로 그 열띤 논의가 있었지만 제2부에서는 나름대로 차분하게 이것을 좀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만 장차 마케팅도 제대로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결론으로 가지면서, 2부 일단 지금 발표하신 분들은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종합정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20분 정도며 2~3분 정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 발표하신 선생님들께 질문할거 있으면 그냥 흥분하지 마시고 특히 중요한 사항들은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 또 논의할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주: “예..제주도청의 투자진흥관입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많은 가르침 주신 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윤성호 교수님께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관광개발 행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제주도를 아무런 개발을 하지 않고 원시적인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면 관광산업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없을 거고 관광객도 더 신비로워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석에선 그런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또 저희가 환경파괴적인 그런 개발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윤 교수님께서 그 여러가지 이중분화구 송악산의 중요성 이런 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절벽에서 50m이격하는 게 언론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격을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교수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건 처음에 저희가 승인을 해줄 때부터 언론이나 환경단체 얘기가 있기 전부터, 개발사업자는 30m까지 이격하겠다는 걸 저희가 50m까지 늘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1차 분화구 이외의 지역을 개발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부터 검토를 할 때부터 그 개발사업자 계획이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가 개발사업자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음 좋겠다. 그런데 개발사업자 측에서는 또 사업이 무산될 것이냐 그리고 또 대정읍의 지역주민들이 비록 100% 정부가 원하는 건 아니겠지

만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개발문제, 그리고 교수님께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그러한 그 중요한 옹회환이라든지 뭐 중심부 분석구라든지 중심에서 말단부 일차 이차 분화구 하고 용암 세가지 요인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독일에서는 1/4을 절개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자연환경 파괴가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개발하고 주된 각종 시설들 콘도라든지 호텔 그리고 각종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은 유원지 부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깥, 1분화구 바깥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1분화구 안에 들어오는 거는 호텔 2개하고 일부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놀이시설도 당초 사업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원했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많이 깎아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별허가할 때에 그게 또 많이 깎여질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영훈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금 제가 과격해진 발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교수님께서 너무나 저희 도정 행정을 힐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서는 이론적으로 탁월하시다는 걸 아까 되묻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그 라임 교수 이론에서부터 제주도청이 개발방조자다, 그 전자 민주주의를 시행하면서 인터넷으로든 어떤 회신을 안 해준다, 회신을 안 해주는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그걸 다 회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 가지고 그걸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환경정책에 대해서 지조 운운하면서 장자까지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들먹여 주셨는데 교수님이 자신의 주관적인 주장은 없고 다른 책이나 이론에서만 지금 발표하신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도나 군 당국 그리고 개발 회사간에 어떤 의혹이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고 저도 그 과거 무학대사가 태조에게 했다는 얘기만 한마디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좌장: “어.. 우선..어 일단은 그 나중에 너무 많이 하다보면... 지금 아까 저 질문... 아니 나중에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윤 교수님 말씀을 좀 해주시고, 나중에 강 교수님 간단히 코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싸움은 제가 좀 말려야겠습니다. 죄송하지마는...”

윤성효: “에...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1차 분화구 내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지금 그 외곽부에 되어있는 휴양 전적공원이라든지 거기서 더 확대해 가지고 그 상모리 하모리 상이수동 일대로 확대를 하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그 어떻게 이야기를 했기에 해외투자자가 분화구 안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데는 투자를 하지만, 그 관광단지를 어느 쪽으로 뻗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분화구 안쪽으로 하는 건 동의를 하고 분화구 바깥쪽에 하는 건 동의를 안 한다는 건 투자 유치한 분의 그 분

의 재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화구 내에 들어가는 게 놀이시설이 들어가고 호텔이 들어가고 1차 분화구의 외륜선을 따라서 빌라형 콘도가 쪽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지질학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요. 이 분화구, 1차 분화구의 능선을 따라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환상 단층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그런 지역에다가 지어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용암연에 들어있는 용암을 지금 걷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근데 그 용암 연의 두께가 적게는 1.2m에서 5m 정도 됩니다. 용암이 고여있는 게 그걸 걷어내고 나면 그 하부에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 화산재가 쌓여있는 그 미고결 상태의 그 옹회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토목지질학적으로 얼마든지 공법을 가동해 가지고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제주도에 나타나 있는 용암 위에, 판판한 용암 위에 짓는 거 하고 그런 화산재가 쌓여있는 그런데 짓는 거 하고 또 송악산 위로 또 곤돌라라고 해 가지고 그걸 올라가는데 송악산은 말 그대로 송이를 쌓아 놓은 겁니다. 거기 곤돌라라 해 가지고 힘을 가하게 되면은 그 내벽이 언제 붕괴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분화구 내부를 안하고 거기를 하더라도 팬텀은 가 하면은 제주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루 안에 모든 지역을 다 관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관광지가 제주시, 중문,

서귀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제주군에서 정책만 잘 한다 하면 그 지역의 외곽부에다 하더라도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렇게 거기가 숙박시설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되면, 송악산도 구경하고 산방산도 구경하고 용머리 이런 지역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장: “네..강 교수님하고 아까 그 얘기는 지금 발언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감정 싸움이 될 테니까 그건 그냥 뒀...저..괜찮습니다....잠깐만요..에...그럼 간단히 고운 말로 해주십시오. ...네...”

강영훈: “제가 그 라임 교수님의 이론을 들어서 현실을 본 이유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학계에서는 상당히 그 이론을 빌려서 현실에 적용시켜 봤고, 다시 이렇게 적용하는 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항상 그 이론하고 현실이 안 맞았을 때 다시 적용하고 하면서 좋은 패러다임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학자들의 노력이고 현실에 대한 어떤 검증의 한 방법입니다. 상당히 그 현실을 모른다, 무슨 그..상당히 그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한 마디만 하고 다시는 얘기 않겠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것입니다.”

좌장: “에..거참 마지막 말이 좋긴 좋네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대답을 지금도.. 잘 대답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질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제주리조트개발 관계자: “ 먼저 제가 두서없이 먼저 패널리스트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회의 그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그 지역민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이런 과격한 건의를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심심하게 제가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제주가 지금 관광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패널리스트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제주도에서 관광개발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질적으로 체험하시질 않은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저는 호텔에서 영업부서에서 도어맨부터 객실, 식음료까지 제가 15년 동안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지배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저기 지질에 관한 학자 분들도 오셨고 여기서 그 일부를 들어보면 지금 송악산 관광지구가 이중분화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대정읍에서도, 송악산의 이중분화구 면적이 약 16만평이 되는데 여기서 백두산 천지하고 백록담 분화구, 일출봉 분화구하고 동일하다고 하는 그 학술적인 논리라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분화구도 분화구 나뉘는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는 저희 조상들이 옛날에 그 씨앗을 일궈 가지고 초가집을 메웠던 그 할아버지 할

머니들이 고초를 겪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학자들이 그 지질학자도 중요하다고 보면 송악산 거기만이 이중분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양도도 있고 어디 여러 곳이 있다고 들고, 그리고 제주도는 전체가 화산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과연 이중 화산체가 아닙니까. 제주도 한라산이 2차 분화구라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도 1차 분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파괴니 뭐니 얘기하고 있는데 하얏트호텔, 신라호텔, 프린스호텔 등 기암절벽에 호텔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개발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더럽혀져 있고 훼손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단장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제주도에서 개발의 걸림들이 되어 왔던 게 무엇입니까? 대정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이 전부 마냥 부정하는 양 그리고 여기에 허가하는 과정에서 대정지역에 기관단체장, 주민, 남군, 제주도 환경심의의원, 경관심의의원 수십명 수백 명이 한걸 가지고 마치 환경단체 한 사람이 전부 100% 뒤집어엮은 양 부정하고 그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최일선에서 외국인도 제가 모셨고 영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아까 어느 분이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대안 제시를 하는데 그거는 이론상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의 근본이 이익창출입니다. 그리고 이익창출 이외에는 영업을 활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대안 제시로 얘기한 송악산 관광지구의 외곽지로 시설물을 배출해야 된다는데 제가 영업부서에서 경영을 맡고

있는 지배인으로서도 그것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망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송악산 관광지구의 프로젝트는 제주도에서는 가장 훌륭하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송악산 관광지구가 지금 약 10만평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가 앞으로 내년 12월 25일에 오픈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정읍민의 합의가 도출되었고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기공식이 있었는데, 합의 도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주민이 역사적으로 과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 환경을 보존하고 테마파크로 바뀌어서 태어날지 그것은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테마파크 공원에서 지금 현재 모노레일과 호텔이 지금 소형호텔 80실하고 120실이 들어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놀이공원을 관장하는 호텔로서 영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고기를 낚으러 가면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까? 미끼를 주는 역할을 해 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저는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송악산 관광개발에 대한 알가불가 할 부분은 이런 스타일의 토론회가 아니고 직접 진짜 뭐가 현실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주의 경쟁력을 살려 가지고 관광지구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업을 하면은 진짜 영업이 잘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해야지 도보로 해 가지고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생태관광으로 해 가지고 손님이 오겠습니까? 100m나가기 싫어 가지고 자가용 끌고 다니는데 그렇게 이치

에 맞지 않은 사실적인.... 그래도 일개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들 아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호텔 보이에서부터 영업을 다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송악산 관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효 교수: “그러면 성산 일출봉도 개발을 해 가지고 일출봉 분화구안에 호텔을 짓고 거기에 올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은 걸어 다니게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되겠지요.”

남제주리조트 개발 관계자: “교수님! 분화구도 분화구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성산 일출봉처럼....”

좌장: “그 문제는 우선 두분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리겠습니다. 각기 주장을 인정한다고..... 그 다음 또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면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하시고, 예 말씀하십시오.”

남제주군청 관계자: “우선 한가지 밝혀 둘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영훈 교수님께서 남제주군의 게시판에 있는 건의사항이 하나도 답신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주관광대학 학생들이 십 여명이 갑자기 인

터넷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것에서 그 걸 하나로 묶어서 분명히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인터넷에 있는 것은 일일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읽어 주신 인터넷 내용, 저는 제주 사람으로 상당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주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느냐? 돈 벌고 싶으면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 서울에 와서 벌어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었다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토론회가 과연 옳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해양군립공원인데, 해양군립공원 실무담당 계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번도 저에게 어떤 내용이나고 물은 사람도 없었고 그 자료를 달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가 이루어진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 한번 전화를 받았고 또 내용을 충고하는 내용이 아니었었고 지금 신상범 지부장님이 전화 한번은 있었습니다. 그건 있었지만 과연 그러한 내용, 실무적인 것을 판단, 지금 진행되는 내용, 계획의 내용, 앞으로의 계획,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토론회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를 하기 전에 신문에 지금 언론지에 40번 정도 게재가 됐습니다. 그 게재되는 과정에 한마디, 차라리 직접적으로 이런 사회에 참여할 것 이면 실무부서에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던가 인터넷에서 인터

넷을 해주던가 직접적인 건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이런 언론에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저희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좌장: “예 저 질문사항은 아니죠?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저 쪽 말씀하십시오.”

김경훈: “저는 서귀포 예례동에 사는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왜 지역을 확실히 밝히냐면 예례동 지역의 중문관광단지가 행정구역상 예례동입니다. 그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 한 예만 잠깐 짧게 들겠습니다. 하얏트 호텔 그 부지가 옛날 예례동의 친구 부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70년도 후반에 개발이 됐죠. 그 때 땅을 팔았는데 그리고 한참 있다가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거기 한번 들렀는데 커피 마시러 갔는데 친구 동생이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러니를..그 중문관광단지 개발을 직접적으로 쪽 겪어 보면서 그 땅을 팔고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관광개발문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개발이익이 환원될 것이냐? 저는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 있죠. 지역주민을 붕 뜨우면 절대 안됩니다. 나중에 5년, 10년 있다가 어떻게 책임 지겠습니까? 이 기대감을 충족 못시키면 그 현장을 바로 가까운 중문관광단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동네에서 살고 환경파괴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개발하시는 모든 분들이 흥분한 게 아닙니까? 냉정하게 옆에 관광단지개발 모델을, 잘못된 부분을 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같이 보면서 이런 토론회도 과격하지 않고 냉정하게 분석해 가지고 5년, 10년 후에 과연 누가 돌맹이를 맞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좀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쪽에 논리도 있고 지역주민 논리도 있습니다. 지금 잠깐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좌장: “여러가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일단은 이것으로서 질의...”

한광문: “저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좌장: “저기 1부에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런...여기 다 모이신분들이 시간이 바쁜 분들도 있고 예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광문: “딱 2분 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해야 될 얘기라서”

좌장: “그..., 저 가급적이면 고운말로 해 주십시오.”

한광문: “우선 그 강영훈 교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의자를 승배하신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실지 관광

개발사업자 측에서 일하면서 외국을 많이 다녀왔고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구걸하면서 외자를 빌어 왔습니다. 국내에서 조달할 자본이 없습니다. 강영훈 교수님이 제가 비용을 다 댈테니 외자를 좀 유치해 오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교수의 자존심 땅에 다 버려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버텼던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돈을 외자 송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어차피 외국인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해 주면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땅 외국에 안갑니다. 그리고요 윤성효 교수님 아까 뭐 주민하고 언쟁 중에 학자적인 지위를 외면하고 '임마'라는 상식이하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분들은 그 얘기는 다른 분들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짜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

윤성효: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과 드리겠습니다. 침언할 것은 주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 가족이 그 일원에 살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바로 인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송악산 분화구 문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는 시설을 바깥쪽으로 하면 바깥쪽의 관광지가 더 확대되면서 여러가지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좌장: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흥분한 상태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과했으니까 제가 말

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논의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사실을 얘기를 하고 노파심에서 걱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저기 저 논의 해 가지고 당국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로써 토론회도 거쳤고, 여기 모이신 분들은 우리가 송악산 문제에서 어떤 것이 참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지적은 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도 또 송악산 주변의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문제들이 우리 마음 속에 간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시간 동안 토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문보도 자료

저로코의 opinion on hani.co.kr **한겨레**

2007. 2. 23



논단

함성구 **인문대 교수** 지질학

세계적 자연유적인 제주도 송악산에 대해 최근 러저타운 조성을 위한 개발 인기가 나왔다. 이는 자연과학과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개발이익 욕구, 유권심리를 말해주는 대조적 사례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기암화산 등 400개가 미처 큰 관광 치를 사양에 골여져 있다. 이 기암화산 중 가장 잘 알려진 계 일을 봉·산골부리·산방산·담산봉 등이며, 남서 해안기와 송악산도 그 중의 하나다. 이 송악산은 제주도에서 가장 젊은 화산이기도 하다.

송악산이 자연유적으로서 가치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바깥쪽 연 해수 유입에 의한 절형한 폭발로 형성된 큰 고리 모양의 용회한으로 돌출해 둘러싸이고 그 안쪽에는 해수 차단에 의해 약한 폭발로 만들어진 용암 도랑과 분식구기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 용회한과 분식구 사이에 용암이 불처럼 넘쳐 흘러 고인 용암연을 형성하고 있는 화산체 서 기로 이뤄져 있다. 작은 화산이지만 하나의 화산이 동시에 서가지 화산체로 구성되고 분화구 속의 분화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서 송악산은 작지만 매우 가치 있는 화산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하나의 마그마 저장고여서 하나의 화구를 통해서 용회현을 탄생 시켰고, 다시 그 분화구 안에 분식구를 탄생시켰으며, 또다시 마지막으로 용암을 쏟아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지공으로부터 하나의 몇 줄을 통해 삼형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용회현이 만행이요, 분식구가 폭포요, 용암이 타내인 것이다. 송악산이 세계적인 자연유적에 속하며 학술적으로도 부연설명이 필요없는 자연과학의 학습자원으로 또한 관광자원으로 큰 가치를 지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자는 송악산의 분화구 안에 러저타운을 만든다는 개발계획 자

한번 원일이 파괴된 자연은 다시 복구할 수 없다. 땅이 풀린 자연유적은 개발로 파괴되어 단산장이 되고 드러난 자연은 사실 물로 모습을 가리게 된다면 현자를 사는 우리는 그때의 세계적인 자연유적 앞에서 후손에게 몇몇하게 고개를 물 수나 있을지 걱정이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그 속어는 무수한 신비와 과학적인 이치를 간직하고 있다.

세계적 자연유적인 송악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제주도는 이미 1994년에 관공지구를 정하면서 송악산을 절대보전지구로 지정했다. 이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한편, 앞으로 이 자연유적을 천연 기념물로 정해 자연과학적인 가치를 보존하면 된다. 송악산은 본 화유적과 같이 보존해야 할 국가적인 자연유적이다.

이 국가적인 자연유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송악산 입지는 지형 지질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자연박물관을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송악산을 일출봉과 같이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초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더러 여가생활로 연결되어 국민 건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매우 다양한 화산 역사를 간직한 화산지점학의 축소판이라는 점을 살려 송악산을 학습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학·문화 신진국은 국민들이 자연유적을 잘 보존할 수 앞 뿐 아니라 이를 보전적으로 이해·활용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송악산 개발 안된다

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실시했다고 하니 이에 대한 기치는 너무나도 잘 이해할 줄로 안다. 환경평가서에는 자연환경 항목 속에 지형·지질이 대해서도 자세히 평가해야만 하니 말이다. 특히 송악산에서는 지형·지질 본이 더욱 철저히 평가해야만 한다. 송악산은 주로 용회암과 스크리아층으로 돼 있다. 송악산의 용회암은 굳기가 매우 약하고 스크리아층은 암석이 아니라 굳지 않은 쇠실물여 해당한다. 이렇게 지반 안정도가 약한 곳에 숙박시설과 놀이시설 등의 커저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다.

산악기행의이정

서리 끼이겨 출고간 복원은
아득하고
수직인 산과 들은 내 생각
에 맑것는데
내 마음 나무 가지에 깃사
린 새 한 마리
꽃이 연꽃 마냥 길겨오
는 들머기에
국과 향기 말라 시경은 또
저우는데
오늘은 어느 우물가 고당
풍을 갖는가
-점령정(泉湧亭, 81)
어오(泉源) 중

오봉의 사모양에 백수봉(白水峰)
가 한 요령을 타고 있다. 백수는 평
안한데 이따다. '대오'는 그 지역
사투리 조르양의 구미와 비슷하
질 낱말을 가지고요. 이따다 1900년
대와 1910년대는 한사조의 변모
속을 드러내는 풍경이다.
이제 저우시에도 어떤 시경이
있을까? 이제 기행 문예적인 기행
은 물론이요, 현실을 포착기 노려
고 있다. 이문재 <새인>

중소재 고구려 첫 도읍지
외국의 관광객에 개방

고구려의 첫 도읍지로 추정되는
'오대산성(五台山城)'을 일반인들도
가볼 수 있게 됐다. 중국 리오닝성
(遼寧省) 환인현에 있는 오대산성은
삼국시대가 도래한 37년 건국된 고
구려의 첫 도읍지로 기록된 출토(出
土)된 고구려(高句麗) 또는 돌본성(돌본성)
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선명여행사(대표 김순범)는 환인
현 지방정부가 자사를 한국내 대표
행사로 선정함에 따라 오대산성 관광
이 가능해졌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행사는 4박 5일짜리 여행상품을 개
발, 국내 관광객이 모였어 들어갔다.
문의 02-874-5556. 박태욱 기자
<pahtw@joongsang.co.kr>

한반도의 최근 화산이자 독특하게
'분화구 속 분화구' 구조를 갖고 있는
제주도의 송악산이 환경개발과 미생
이해 송두리채 보존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는 이 산을 '절대보전지구'
로 지정해놓은 상태인데도 지난해 12
월 30일 습곡면 리조르탄지 개발사
의 허가를 내렸다. 개발면적은 3만
여평.
이 산은 세계적으로 화산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환경영향
평가에서 지질학 전문가들이 사실상 참
여하지 않은 채 사업허가가 이뤄지
다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 내용=제주도 남제주군 더
점동 송악산권지구 사업자인 남지



경분화구
제주 송악산
개발이 쫓긴다

주리조르탄지 개발 2005년 말
까지 7천6백여여원을 들여 대규모
리조르탄지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두번의 화산폭발로 형성된 이 산의
중심부에 놓여 있는 2차 분화구만을
제외한 송악산 정상 분화구지대 대부
분 지역에 각종 시설을 세우는 것이
다. 제2분화구 외곽은 관공리가 성
치된다.

제1분화구 지대에는 호텔·콘도와
리조트·쇼핑센터·놀이시설 등이 들어
서게 된다.
화산석이 만들어 제주도 심의를 통
과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시설물
설치를 위해 산 정상부와 양면과 또
시지대를 잘라내는 것이 불가피하
고 못된다고 있다.

이 회사는 서진산업개발과 키르키
스스탄의 산드리아(사드리아) 합작방
식으로 설립했고 향후 프랑스·이탈리
아 회사로부터 4억달러 가량의 외자
유치도 이뤄진다.

○무엇이 문제인가=김대환 지질학
과 안종현(원광대·화산지질학)교수와
한국지질연구소 전영식 박사 등 권
력자들은 "분화구 대부분 지역에 각
종 놀이시설과 호텔시설을 하려는 게
지자체가 상사(商社)라고 강조한다.
화산지의 퇴적층으로 이뤄진 이 산
을 깎아내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면
지반붕괴 우려까지 있다는 게 지질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적 지질학 가치"

절대 보전 지구 지정
위리시설 술머시 허가
분화구 위 호텔·유원지

지금도 한반도에서는 비단봉으로 인
한 침식작용이 거듭되고 있어 개발
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질학자들의 분석은
환경평가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송악산의 경우 지질분야와 환경영
평가 가장 중요하지만 보고서는 육
상·해상과 동·서방향상을 주로 다루
고 지질분야는 기타 영역조사로 끝
났다.

지질분야 용역업체도 환경영향
평가사업 개발업체인
사도 기존 지질학자
들의 연구나

용을 인용하고 몇가지 지표조사를 거
친 뒤 제주대 Y교수를 감수위원으로
출거했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어
름을 도입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산지질학 전문가와 제
주환경운동연합·한국자연보전연
맹이 제주도에 사업승인 철회를 요구
하는 운동에 나섰다. 문화체육이 긴급
남대지도 요청했다.

환경권 교수는 "개발계획의 전면수
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악산 과금=제주도는 1991년 송
악산권공정구를 지정하면서 송악산
을 '절대보전지구'로 지정, 송악산
외의 위리지구·일어난 개발로 제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오히려 위리지
구를 제외하고 송악산을 집중개발하
는 것으로 틀린 바가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송악산 전문가의
조건을 달았고 주민·사업업체 등
합의를 수차례 거쳤으며 절대보전지
구내 시설물도 관계에 따라 제한적
으로 시설할 계획에서 허가"가 없
다고 말했다. 제주·상상철 기자

사건=서재환(사건기자)
<ygodot@joongsang.co.kr>

송악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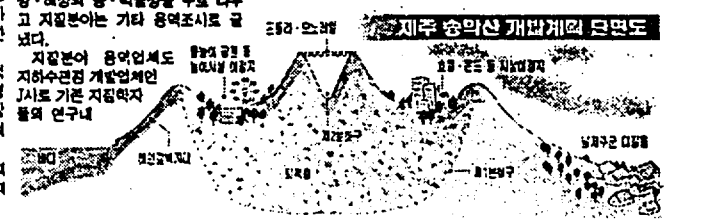
회귀 암석의 보고
화산연구의 교과서

해발 1백40m인 송악산은 제주
도내 다른 기념화산과 달리 1002
년과 1007년 지진·화산활동으로
탄생시킨 한반도, 제주도, 화산이
다.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 해수면
위로 지상을 이루 뒤 다시 화산이
폭발해 2차 분화구를 이룬 폭이
지형이다. 그만큼 신비스런 지리
가 잘 보존되고 희귀암석이 많다.
중국화산학회가 지난해 11월 한중
합작 연구를 맺었고 일본화지학도 수차
러 연구협정을 다녔다.

분화구지대의 형성과정을 육안
으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용화암
송·사구송·화산암석을 모아 드
러니 있는 '화산의 교과서'다.
지난해 1월엔 송악산 부근 용
화암 퇴적층에서 신심대 4기지층
인 3번~4번년 경의 '새 발자
국' 흔적이 발견되는 등 고생물학
전문가들에게도 관심 대상이다.

<도움말 주신분>

손인석(제주화산지질·풍굴연
구조사)박사·이문현(경천대 지
질학과)교수·윤철호(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교수·강순석
제주도민속자료사적분류 연구
위원·신상철 한국자연보전연
맹 제주지부장·김천동(제주
대 사물학)교수·원종만 교
수·김영식 박사



“송악산 개발은 파괴행위”

국내 화산지질 전문가들, 문화재청에 의견서 제출

“2중 화산체 세계적 자원” 천연보호구역 지정 촉구 환경단체도 반대 움직임… 문화재청 상황 파악 착수

화산지질학적으로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송악산권 광지구개발사업과 관련 중앙문화재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문화재청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이자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인 안종근 박사(화산지질학전공)는 “송악산으로서 화산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 송악산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언어도단이며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안 박사는 또 제주도 현상과경이나 화산활동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송악산의 중요성을 감안 3년전에 비공식적으로 문화재로 지정 추천한 바 있다며 송악산화산체의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에 대한 의견을 지난해 12월 30일 문화재청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안 박사는 뿐만 아니라 한국지질 연구소 책임연구원 진명식박사, 강원대 이문환박사, 부산대 윤성호박사등 국내대표적인 화산지질학 전공 전문가와 지질분야를 맡고 있는 제주도문화재위원도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전문가들은 의견서에서 “도로 보급이 관광자원 개발이란 미명아래 천연관광자원을 파괴하는 것은 현실현 발상”이라며 “사업의 저검토와 세계적인 화산지역의 관광명승지로 가꿔나가기 위한 천연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지난해말 이요관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도당국과 문화재청에 보내 송악산개발사업의 전면 저검토를 촉구하는 등 반대 움직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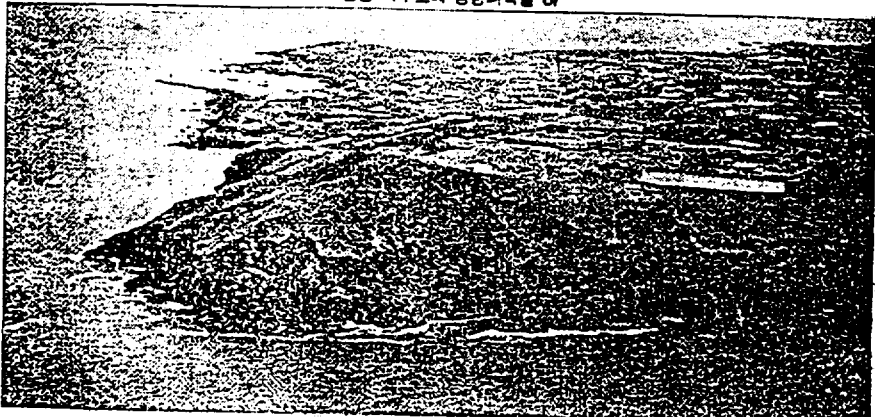
문화재청 관계자도 송악산개발과 관련 제주도에 상황파악을 하

는 한편 현재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히고 문화재 지정이 중요하면 제주도 등 관련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지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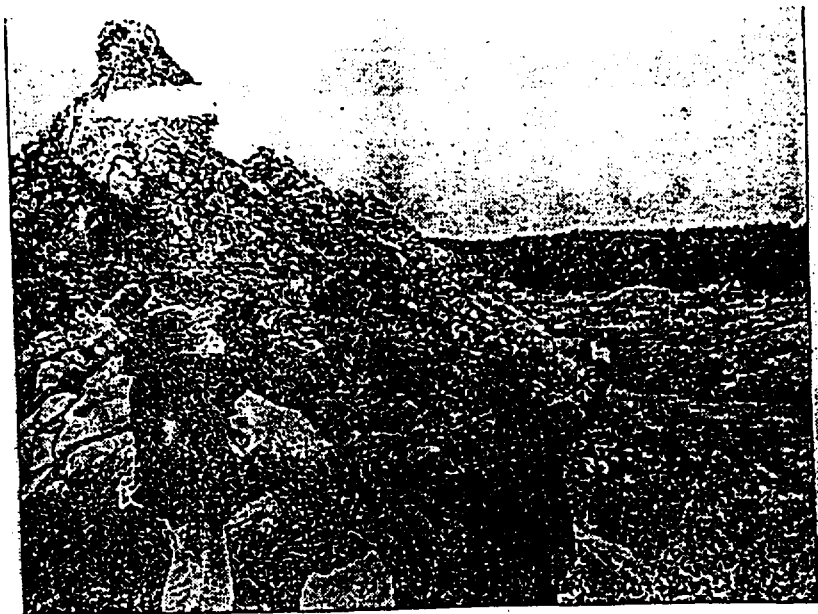
이에따라 송악산관광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업의 타당성여부와 함께 개발과 환경보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일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해 12월말 승인한 송악산관광지구개발사업에는 오는 2월부터 2005년까지 4천8백10여명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천후 4개월형 종합휴양지로 개발된다.

이윤범기자 yunse@hansbo.co.kr



○국내 대표적 화산지질 전문가들이, 본사주문 송악산권개발사업과 관련 일련 반대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송악산권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한라일보 자료사진.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지질전문가를 비롯 환경단체들이 12일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사진=김영희기자 yhkim@halla1bo.co.kr

송악산 개발 재조정 촉구

지질전문가·환경단체 12일 현장답사 ^{한라} 2000.
주민들 찬성 입장... 타당성 검토해야 1·13

속보=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지질학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12일 현지 답사에 나서 "계획대로라면 세계적인 화산명승지인 송악산분화구 파괴가 우려된다"며 전면 재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보 1월7일 19면보도)
중앙문화재위원인 원종관박사(강원대지질학과교수)와 윤성효박사(부산대지구과학과교수) 등 국내 대표적인 지질학 전문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한국자연보전협회 제주지구 관계자 등 10여명은 이날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일대를 둘러본 후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역 자생단체들 비롯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낙후되고 소외돼 왔으며 관광지구 개발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종관박사는 이날 "환경영향평가보고서대로 개발이 이뤄지면 1·2차분화구는 파괴되고, 말 것"이라며 "이중화산체의 바깥쪽으로 시설물 배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성효박사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분화구 내부는 손대지 말고 그 바깥쪽으로 개발하는 것"이라며 "현재 계획대로

라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송악산의 화산 지질학적 가치나 중요성이 떨어져 오히려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상실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이은형기자 yhlee@halla1bo.co.kr

송악산에 종합 리조트단지

송악산관광지구 개발과 관련, 사업자인 남제주리조트개발주(총회장 이명재, 대표이사 김익진)와 호텔부본 투자 프랑스국제기업인 ACCOR그룹(사장 필립 라이) 및 남제주군간 투자협정 서명식이 8일 남제주군청 군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정식에서 제주도송악산관광지구 종합리조트개발사업(가칭 크리스티아랜드 종합리조트 프로젝트)에 세계적인 호텔체인업체인 ACCOR그룹은 전체 개발사업중 호텔 키즈부본및 기타 관련된 시설에 3억달러(한화 약 3600억원)를 투자키로 했다. 이날 남제주군과 남제주리조트개발주및 프랑스그룹에 의해 설립된 ACCOR그룹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우호를 증진하고 송악산개발사업추진에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남제주리조트개발주로 남제주군은 송악산관광지구 종합리조트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법규에 의해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협정식에서 투자자 보호

남제주리조트-ACCOR-남제주군, 8일 투자협정식 호텔 카지노 시설 등에 3억달러 투자



○송악산 관광지구 투자협정 서명식이 8일 남제주군청 군수실에서 열렸다.

를 위해 투자의 수익은 대한민국 의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기로 했다.

투자협정서 서명식에는 김태훈 남제주군수, 남제주리조트개발주 의 이명재 총회장·김익진 대표이

사, ACCOR그룹의 필립 라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와 영어로 된 3부의 협정서를 작성, 서명하여 교환했다.

(조운옥 기자)

mwcho@chejunews.co.kr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주도 최남단의 해안
절경지인 송악산관광지구
의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
추진이 가시화되
고 있다.

남제주군은 8일
송악산관광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인 남제우리조트개발주식회사
(대표 김익진)와 프랑스 소재의
세계적인 호텔체인업체인 ACC
OR그룹(대표 필립 라미) 등 3자
간 송악산관광지구 투자 협정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송악산관광지구 투자협정
서 서명식은 그동안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제주지역 관광개발에
관심만 보이다가 물러서는 상황
에서 자긍심을 세계적 호텔
체인업체인 투자라는 점에서 의
미가 크다.

ACCOR그룹은 현재 전세계에
400개의 호텔체인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86억달러(1997년말
현재)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전 세계적 호텔체인그룹.

한국에는 소려당명백서호텔
과 드브넬을 ACCOR그룹이 전
담경영하고 있으며 키지노 등도
합계 경영하고 있다.

ACCOR그룹은 투자협정서에
표준키노면적에 3억달러(한

송악산관광지구 개발 어떻게 추진되나

세계적 호텔체인 그룹 ACCOR 투자 국제적 수준 리조트타운 개발 전망

화 약 3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제주지역 관광개발에 따른 자
긍심을 해외업체 자금도입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ACCOR그룹의 투자협정의에
도 높이급원생산업체로 전 세계
142개국에 디즈니랜드 시설을 공
급하는 이탈리아 국적의 SATO
RI그룹도 송악산개발에 1억2973
만2000달러의 외자를 투자기로
해 오는 15일 투자조인식을 갖기
로 했다. 이번 ACCOR그룹의
송악산관광지구 투자 합의로 인
해 최고의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송악산일대가 국제적 수준의 리
조트 타운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파급효과로 호텔과
컨벤션 키지는 높이급원 해양생
태공원, 곤드라미 및 모노레일 마리
나시설등의 분야에 약 1952명의
고용창출효과등 지역경제 활성화
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인근의
관광지인 용머리도 산양산에 관

광객 증가 및 대중음과 안덕
면동의 농산물을 원활히 처
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
역주민 소득이 증
대하는 등의 상승
효과도 함께 기대
되고 있다.

이번 송악산개
발사업협정은 제주도송악산관광
지구 종합리조트개발로 가칭 크
라시비아랜드(Krasivaya Lan
d, 러시아어로 '아름다운 땅'이
라는 뜻) 및 호텔관광종합타운.

송악산관광지구지정 용면적 50
만5000평중 이번 25만3600여평에
오는 6월 착공, 2004년 6월 완공
목표로 크라시비아랜드 및 호텔중
마스터플랜에 의한 종합리조트관
광개발이 이뤄진다.

송악산관광지구 개발사업은 남
제우리조트개발유이 주관이 되
추진하며 프랑스의 ACCOR그룹
과 이탈리아의 SATORI그룹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송악산관광지구는 호텔, 쇼핑
센터, 국제회의장, 키지노시설, 오
션즈먼트파크, 워터파크, 마리나
시설, 해양수족관과 체육시설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 리조트
타운으로 개발된다.

<조문욱 기자>

mwcho@chejunews.co.kr



김 일

요즘 중앙정부 뭐하나

데스크의 논

그곳은 제주도 최남단.

그곳에 오르면 푸른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른 용암(熔岩)절벽과 커커이 가로누운 화산 단층, 기암괴석들이 즐비하다. 미라도와 가파도가 한두 걸음에 달려올 듯 시원하게 펼쳐진다.

비경(秘境)이다.

혹여 우뚝 선 송악산.

이 녀석은 서거적으로 화려한 '본화구 속 본화구' 구조를 가졌다. 수능 육박로만 들어진 데다 화산 형성과정들 한눈에 이해할 수 있거늘 단층이 드러나 있다.

원종권(元宗權) 교수(강원대 화산지질학) 등 전문가들은 "지질학적인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 산 본화구를 감아엎는 데다 직 개발사업이 곧 착수될 전망이다.

제주도청은 1994년 송악산 일대를 관광지구로 지정하면서 산 대부분은 '잘대보 전지구'로 지정하고 산 아래 취락지구·일야만 개발토록 했다. 그런데 어찌된 심인지 '본화구 안'에 49만평이나 되는 종합레저타운을 짓겠다는 남재주리조트개발의 신청이 지난해 12월 30일 허가를 일찍 내주었다.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육심을 보낼 것이다. 주변 주민도 원한다고 한다.

중앙일보 는 1월 12일자 26면 보도를 시작으로 이 허가의 과잉성을 잇따라 고발해왔다. 제주도가 방침을 1백80도 바꿔 잘대보전지구인 본화구 내에 사업허가를 내준 부당성을 강조했다.

한리산 벽쪽담 안에 호열·콘도·물놀이공원·쇼핑센터·식당 등을 짓는다면 누구나 아연실실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계획을 철회하거나 적어도 레저타운을 관광지구인 산 기슭에 짓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화구 일대는 생태관광지로서 보전해야 상품성도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반도 취약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현안에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들이 들먹은 범어리가

되고 있는 점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와 5개 시민단체와 지질·해양학계 등이 1월 말 청와대·감사원·환경부·문화재청에 경위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문화재청은 본화구 일대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건의문을 받은 바 없고 조지도 안하고 있다"고

'주민 눈치보기식 행정'이 아닌가.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 본화구 일대를 천연보호구역이나 기념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도 "조사는 하고 있으나 아직 문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후련한 자세다. "허가 제도상의 개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는 정도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주도 송악산 개발 문제 많은데 환경부등 관련 부처 뒷집만”

말한다.

이 정도에 환경문제면 조사단을 보냈을 환경부도 손을 놓고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91년 제정)상 제주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간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푸념이다.

한 일인이 이 법은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전결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이 특별법은 나아가 '이 법으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산림법 등 26개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도끼비 방망이' 같은 조항도 갖고 있다. 제주도와 개발사업은 계획도 심의도 승인도 제주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 것이다.

환경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사대 후 현자조사까지 본다. 그러나 "문제는 있지만 주민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세 천년의 출발점에서 중앙정부는 무엇 을 하고 있는가. 선거를 의식해서인가. 여 말'대 나서야 하는 게 총리의 역할이 아닌가. 천연보호구역이 될 정도라면 '국가적' 자산이다.

<전국부정>

<ilkim@joongang.co.kr>

제2도시우회도로개설 등 조건부 동의 송악산지구에 해양생태계 보완 요청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식행정부지사)는 10일 제주시가 제출한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와 남제주리조트개발주식회사(대표 김익진)의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일부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선에서 조건부 동의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제주시 연동에서 도련동에 이르는 연장 9.5km 제주시

화북동 일대 연장 1.3km에 대한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최대 강우에 대비한 배수시설 설계와 빗물의 지하수 함양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도는 투수콘크로 시공토록 했다.

또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전까지 해양생태계 보완 조사를 요청했으며 서림상수원 용수 공급 부족에 대한 계획, 공사 추진에 따른 토사의 해양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 설치와 재원확보방안 마련 제시 등을 요구했다.

/김석범기자 spkim@halla1bo.co.kr

지역개발이나 환경보전이나

세계적 브랜드를 파괴하는 걸까. 주민들의 향토민속 전통 푸는 걸까. 최후를 앞둔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 놓고 찬반론 논쟁이 뜨겁고 있다. 환경단체와 유년 개발자들이 세계적으로 브기드

문 2중화산체인 송악산을 피어치겠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든가 개발계획의 관련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자 주민들은 송악산과 함께 죽었던 과거와 다른 역사를 쓴 건히 외면하는 주종이라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세계적 회귀한 2중화산체...절대보존”
“관광지구개발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한

술 더 퍼 지질학자들이 문화재경 유산인 화산지역을 국가차원의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데 대해 주민들은 삼촌을 건 구경의 자를 표명하는 등 지난보항 사업승인을 전후에 불거진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논쟁의 발단엔 중앙문화재위원회가 김관대교수인 권영관학사들 비롯 지방자치단체 직원연구소 책임연구원, 제주도문화재위원인 송인석박사, 김관대 이문교수, 부산대 문예연구소장 김관대 등이 문화재청에 송악산 화산석주변 개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지난해말부터. 하나같이 화산지질학을 전공한 이들은 의견서에서 '송악산은 수증 폭발에 의해 형성된 피분화구인 용화화구 육상에서 분출

폭발한 제2분화구로 구성된 2중화산체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구조인데다 파쇄쇄, 자연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만큼 전체적으로 보존해야할 전형적인 화산지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환경연구센터 및 자연보전협회 제주지부 등과 함께 송악산 화산체 보존에 대한 긴급 조사를 건의하면서 문화지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뒤를 이어 제주환경연맹도 '개발이 추진 중인 관광지구 입지는 모두 분화구 내·외곽에 해당되는 만큼 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주도의 문화재청에 개진했다. 당면히 주민들은 발근하고 나섰다. 이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폐 하필이면 최공물

많은 지점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느냐'는 것이다. 9년 관광지구로 지정될 떠나 이후 사업설명회, 주민공청회 등 대는 일관반구 일다가 풀린 문제를 풀고 나온 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려는' 의도도 뒤에 없지 않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대정읍이정원협의회가 청명까지 내고 '주민들의 소중한 관광개발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며 '송악산을 천연보호구역 및 문화재로 지정하라는 의견 개진을 철회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첫발을 드러는 시합에 뛰어들고 있는 논쟁이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 무렵이다. 남고 있다. (김석범 기자)

관련기사 12면

지역사회발전연구소

1. 연혁과 설립목적

제주대학교 부설 지역사회발전연구소는 사회발전연구소와 지역발전연구소가 통합돼 1993년 2월에 설립되었다. 지역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와 사회과학 제 분야의 학술이론 연구와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개최, 간행물 발간,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학술 교류, 기타 연구소의 기능수행에 관련된 업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역사회발전연구소로 통합한 이후 초대 소장은 김범국 교수(1993. 4.~1993. 8.), 2대 소장은 고재건 교수(1993. 9.~1994. 9.), 3대 소장은 고경표 교수(1994. 10.~1996. 10.), 4대 소장은 정대연 교수(1996. 11.~1999. 11.), 5대인 현 소장은 장성수 교수(1999. 12.~현재)가 맡고 있다.

2. 연구소의 기구와 구성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산업·경제연구부, 법률·행정연구부, 사회·문화연구부, 국제통상·협력연구부, 자원·환경연구부, 행정자료실 등의 부서가 있다. 2000년 11월 현재 인문·사회분야 등의 92명의 교수들이 연구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고, 3명의 특별연구원과 4명의 연구조교가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돕고 있다.

3. 주요 활동 소개

1) 학술세미나 개최

1999년 3월 이후의 개최실적 현재까지 총 11회의 학술발표를 개최하였다.

행사 구분	명칭 또는 주제	개최일시	개최장소	논문 등 발표		총참가 인원
				총발표 수	소속연구원 발표편수	
국내 행사	제주개발정책의 새로운 전개와 그 문제점	1999. 5.18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2	2	42
국내 행사	자체학술세미나 (통상제15회)	1999. 6.22	"	1	1	20
국내 행사	「사회발전연구」 제15집 투고논문 발표회	1999. 10.22	"	4	4	20
국제 행사	소비와 환경	1999. 9.29 ~ 1999. 9.30	"	10	3	83
국제 행사	섬 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5개 연구소 공동 개최)	2000. 2.11	"	1	-	10
국내 행사	지속가능한제주 개발을 위한 토론회: 송악산 관광단지개발논쟁을 중심으로	2000. 3.31	제주중소기업 지원센터	1	1	120
국제 행사	외국석학 초청 학술 세미나 : 세계화시대의 커뮤니케이션	2000. 4.24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1	-	67
국내 행사	지역발전토론회 : 우리 지역 관광자원 연계 활용방안	2000. 7. 8	안덕면 생활체육관	2	1	100

행사 구분	명칭 또는 주제	개최일시	개최장소	논문 등 발표		총참가 인원
				총발표 편 수	소속연구원 발표편수	
국제 행사	섬과 대륙의 공 영 : 그 하나됨 을 위한 도전과 응전(5개연구소 공동개최)	2000.10.14	제주시 KAL 호텔	15	1	95
국내 행사	지방화시대의 관광정책활성화 방안	2000.10.20	서귀포시 선비치호텔	1	1	21
국내 행사	지역초점 대토론 회: 제주형 펜션업 개발, 어떻게 정착시 킬것인가	2000.10.30	제주중소기 업 지원센터	1	1	80

2) 연구용역의 수행

제주세무서의 연구용역수행 사업자로 등록 (사업자 번호 : 616 - 83 - 05706)한 1999년 6월 9일 이후로 대학 외부에서 계약·수주한 연구용역은 총 6건에 달하고 있다.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지원기관	비고
	직급	성명				
하효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회·경제환경	연구 조교	장신욱	3,000	1999. 11. ~2000. 10.	(주)건일 엔지니어링	
산천단유원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 사회·경제환경	연구 조교	장신욱	3,000	1999. 12 ~2000. 11	태일환경(주)	
제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 도시특성 조사 및 환경보전 계획수립 부문	교수	양영철	49,500	2000. 1. ~2000. 12.	국토연구원	
태양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 사회·경제환경	교수	장성수	3,000	2000. 11. ~2001. 10.	태일환경(주)	과업 수행 중
제주 여성농업인의 복지요구조사에 따른 분석	교수	김진영	3,000	2000. 11. ~2000. 12.	제주도여성 특별위원회	"
북제주군 해양군립 공원 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	교수	장성수	19,000	2000. 11. ~2001. 2.	북제주군	"

3) 학술논문 DB구축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학술논문 DB구축사업이 완료되어, 2000년 9월부터 서로간에 생선정보 및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4) 국제학술교류

1994년부터 한·일해협권 7개 시·도·현 공동연구를 위한 제주도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1995년 8월 큐우슈우 운젠에서 개최된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에 연구소장을 비롯한 3명의 연구원이 참석하였으며, 1996년 9월에는 광주에서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 연구소장 외 2명의 연구원이 참석하여 공동연구 주제인 “한·일해협권의 농산물 교역촉진에 관한 연구”의 중간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1996년 11월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 실무자회의에 고경표 교수와 김형길 교수가 참석하였고, 이어 1997년 6월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 총회 및 연구결과 발표회에도 고경표 교수와 김형길 교수가 참석하였다.

한편 우리 제주대학교와의 자매결연 대학인 일본 소카대학 아시아연구소의 초청으로 연구소장인 장성수 교수가 2001년 1월 6일 ~ 2001년 2월 23일까지 2개월간 동경을 방문할 예정이다.

5) 연구논문집 발간

본 연구소의 정기간행 연구논문집인 「사회발전연구」는 2000년 11월말 현재 제16집까지 발간되었다.

집 필 자

(가나다 순)

김한욱 1948년 생.

오현고등학교 졸업, 제주대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수료.
제주도 관광문화국장, 기획관리실장 역임.
(현) 행정자치부 제주 4·3처리지원단장.

송재호 1960년 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경기대 대학원 관광경영학박사.
'지방정부 관광정책 이해집단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등
논문 다수.
(현)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전임강사.

장성수 1954년 생.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경기대 대학원 관광개발학박사.
'관광지 개발잠재력 평가요인과 투자결정경로에 관한
구조분석' 등 논문 다수.
(현)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한국관광학회 부회장.